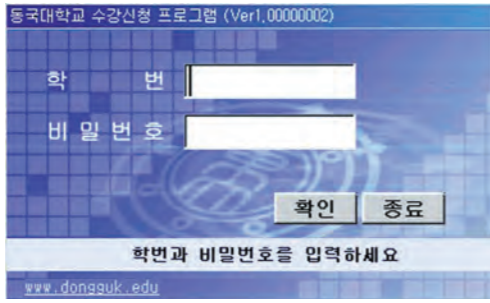


학사제도를 비교·분석한다 ①

수강신청제도 변경요구 '붐물'

시험과 기간 겹쳐 이중부담 순서에 대한 의견 분분



매번 수강신청 기간이 되면 어김없이 학내는 수강신청에 대한 목소리들로 무성하다. 이 기간 동안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은 수강신청에 관한 질문들과 빗발치는 원성들로 뒤덮이기 마련이다. 그동안 수강신청과 정정 제도에 대해 여론수렴을 통해 많이 보완됐지만, 기간과 학년별 순서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하다.

본교 수강신청 순서는 저학년에게 선택 우선권을 주는 1-2-3-4 학년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대부분 복수전공자들은 복수 전공의 수강신청이 힘든 현실이다. 복수전공의 특성상 대부분이 뒤늦게 1, 2학년 전공 강좌부터 들어야 하지만 이는 이미 저학년 전공자가 신청한 후이기 때문이다. 또한 4학년은 정원을 초과해도 수강신청이 가능해 4학년으로 인해 강좌인원이 초과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수강신청기간=기말고사 기간 동안 도서관과 함께 컴퓨터실이 학생들로 붐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수강신청기간이 학기중인 기말고사 기간이기 때문이다. 학생들 대부분은 "시험기간에 강의시간표를 짜고, 신청날짜가 시험과 겹치면 듣고 싶은 것도 들을 수 없다"며 부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다.

서강대, 한양대의 경우 4학년이 졸업에 필요한 수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4-3-2-1학년 순을 사용하고 있다. 4-3-2-1의 경우 정원초과 현상은 막을 수 있지만 고학년이 저학년 전공 수업을 신청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강신청 기간이 전공결정 이전이기 때문에 1차원에서 탈락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번 정정 기간에 전공수업을 모두 변경해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1·4·2·3을 채택한 연세대는 1-2-3-4, 4-3-2-1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본교의 복수전공자와 정원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 3학년이 같이 수강신청을 하기 때문에 2학년 전공수업 신청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타대학들은 수강신청 기간을 개강 2주전으로 정하고 있다. 한양대 교무처 학사과 심대진 과장은 "학생들은 학교 외에도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이라도 불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본교 경우 1·4·2·3이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다만 1·4·2·3 순을 도입할 경우 2학년 전공강좌 수가 제한되어있는 현실을 감안해 2, 3학년 간 경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을 들어 학생들은 다른 대학과 같이 수강신청 기간을 전공 결정 후인 방학 중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실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사정은 알지만 이미 일년 학사일정이 정해져있어 당장은 변경할 수 없다"며 "내년까지는 변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telleme@dongguk.edu

▲수강신청순서=수강신청기간과 달리 신청순서는 각 대학마다 실정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역시 분분하다.

교원·직원 보직인사

김태홍 경영대학원장 등

본교는 지난 1일과 5일 각각 교원과 직원의 보직인사를 발령했다.

보직교수에는 △경영대학원장=김태홍(국제통상학) △경영대학장=이승영(국제통상학) △국제정보대학원 교학부장=이영면(경영학)이 임명됐다.

직원보직에는 서울캠퍼스 △대의협력처 발전기금팀장=황주환 △교무처 학생선발실장=황우열 △사무처 총무팀장=박광호 △교육대학원 교학부장=이종석 △가상대학 교학과장=박승중 △분당한방병원 사무국장=윤범대가 임명됐다.

경주캠퍼스 △사무처장 서리=신일식 △사무처 시설관리팀장=

이철우 △의과대학 교학과장=한대호 △금강생활관 관리과장=석광열이 임명됐다.

'불교원전연구' 발간 국내최초 불전번역연구지

불교문화연구원(원장=권기종·불교학)이 개교 95주년을 맞아 '불교원전연구'를 발간했다.

국내 최초의 불교원전 번역연구전문지인 '불교원전연구'는 한역본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로 쓰여진 경·율·논을 번역하고 주석했다.

이와 관련해 권기종 원장은 "이번 학술지 발간은 불교학의 현대적 해석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전했다.

사회봉사기관 박람회 개최 참사람봉사단도 접수받아

'사회봉사기관 박람회'가 참사람봉사단(단장=송석구·철학) 신청기간 첫째날인 오는 12일 오전 9시 중앙도서관 앞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봉사기관 실무자가 학생들에게 직접 기관과 봉사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봉사자 접수를 받는다.

또한 기간 중 △봉사자와 대상자를 연결하는 1대1 결연 △후원자 모집 △사회봉사활동 사진과 자료 전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교내에 사회봉사문화가 폭넓게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주캠 경쟁력 강화 방안수립

영남지역 입시홍보 주력에 예산확보 관건

오는 2003학년도부터 다가오게 될 수험생 부족현상에 대비해 지방대학들이 비상체제에 돌입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해 나가고 있다.

본교 경주캠퍼스도 지난 달 28일에 '2002학년도 학생모집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경주캠퍼스의 입시 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경주캠퍼스의 위기론이 제기됐으며 각 처별로 내놓은 장·단기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에 경주캠퍼스가 처한 현실과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영남지역 중점 홍보로 지원 유도 강화=최근 4년간 경주캠퍼스 지원자의 추이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지원자들은 영남지역 76.2%, 수도권 17.8%, 기타 6%로 집계됐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4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약 5% 감소한 반면 영남지역 수험생들의 지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강정구교수 구속적부심 기각 이번주 보석신청 예정

만경대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강정구(사회학)교수가 낸 구속적부심이 지난 7일 기각됐다.

서울지법 형사31부는 "영장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석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는 사회학과 학생 50여명이 참석하려 했지만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강교수측은 이번주에 보석신청을 낼 예정이다.

일본자매대대 연수생 방문 10일부터 한주간 수업참여 등

해의 자매대학인 일본 삿포로학원대학 학술문화연수생이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본교를 방문한다.

일본 삿포로학원대학과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인솔교수 2명과 학생 10명으로 연수단이 구성되어 있다. 연수단은 6박 7일 동안 김영민(영문학)·슈리던(영문학) 교수의 수업에 참여하고, 서울 시내를 견학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교류팀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학보다 유리한 입시경쟁력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취업차별화 전략으로 1학생 1자격증 갖기 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방안이 그 대학의 생존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계획들은 단발적인 사업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구성원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주캠 발전을 도모해 가야 한다.

△경쟁력 강화 방안=주요 방안으로 교육환경개선, 입시홍보 강화, 복지 및 문화시설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경주캠퍼스의 경성비를 최대한 절약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경주보도) 최창호 기자
windy@mail.dongguk.ac.kr

대학보다 유리한 입시경쟁력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취업차별화 전략으로 1학생 1자격증 갖기 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방안이 그 대학의 생존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계획들은 단발적인 사업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구성원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주캠 발전을 도모해 가야 한다.

▶관련기사 2면(경주보도) 최창호 기자
windy@mail.dongguk.ac.kr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

고려대장경 750년만에 한글로



지난 5일 장충체육관에서 한글대장경 완간기념 회향법회가 열렸다.

한글불교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한글대장경 318권의 완간을 기념하는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가 지난 5일 장충체육관 특설법회장에서 열렸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본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법회에서는 한글대장경을 부처님께 올리는 고불의식 등이 치러졌다.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고종 때 몽골의 침략을 불심으로 극복하기 위해 16년(1236~1251년)에 걸쳐 조성한 불교문화의 정수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다. 그동안 조선조와 일제시대에 한글대장경 간행 노력이 끊이

지 않았으나 완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후 750년만에 팔만대장경이 한글대장경으로 재편된 것이다.

대장경 역경사업은 국고 50억 원을 포함해 약 200여억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초창기 문헌 스님을 비롯한 교계의 큰스님과 이종익·김달진 등의 불교학자가 번역을, 조지훈·서정주 시인 등이 운문을 맡았으며 최현배·이희승씨 등 국어학자들이 맞춤법과 문장을 담당하는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이뤄졌다.

▶ 관련기사 2면(학내보도)

지면안내

신화로 문화읽기



6~7면

최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화를 통해 그 나라의 민족성과 그들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를 읽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의 신화 관심증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다양한 신화로의 접근을 시도해 각기 다른 문화를 접해보고자 한다.

보수주의를 말한다

4면

로봇공학 살펴보기

5면

겉고실은 거리 만들기

10면

보리수

책과 쌀

정승석 (불교대학 교수)

독서의 계절과 황금 물결. 가을을 선언하는 이 두 수사는, 열림과 벗을의 열기가 미처 가리양기도 전에 그 열기에 대한 미련을 이제는 별 수 없이 버리게 하곤 했다. 각각 책과 벼를 연상의 대상으로 함축하고 있는 그 두 수사에 공통하는 개념은 성숙인지라, 그 성숙의 무게가 더해 있던 열기를 가라 앉히기 때문이다.

독서의 계절은 지성의 성숙을 예고하고, 황금 물결은 곡물의 성숙을 예고한다. 이 예고대로 가을에 우리가 주로 거두는 수확이 책과 쌀이다. 책은 다시 지성의 양식이 되고 쌀은 다시 육신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정신과 생명을 지탱해 준다.

그러나 인간의 필수적인 두 양식이었던 책과 쌀이 그 필수 자리에서 쫓겨나는 같은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러도 책과 쌀이라는 양식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소비자는 양보다는 질에서 고가의 양분을 제공하는 것들을 주로 찾게 될 것이므로, 출판사와 농부도 이 방향에서 대책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마땅히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밭이 꽃에서 꿀을 취할 때, 오직 그 맛을 얻고서 색이나 향을 취하지는 않는 것처럼."

"수천의 문구일지라도 유익한 말이 담겨 있지 않은 글이라면, 이보다는 읽고서 평안을 얻는 하나의 문구가 더 낫다."

유교경(遺教經)과 법구경의 이 교훈은 책과 쌀의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지침이 될 만하다. 밭(양분)과 평안은 언제나 인간의 몸과 마음을 양육하는 필수 요소이다.

발전기금 ARS 7000-119

동대신문 기획광고



손들이! 음식물 버리는 너희를 체포하겠다!

상록원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하루 평균 1톤.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최소비용 13만원.

혹시 필요이상 욕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만큼 덜어 먹는 습관

우리에게 필요한 미덕입니다.

교학과 서비스 질 '불만 > 만족'

본사 설문조사결과 태도는 대체로 '만족'

학사일정이 분주한 개강 초 본교 홈페이지 '나의 주장'에 교학과에 대한 불만의 글들이 올라왔다. 이처럼 최근 학사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이틀동안 본사에서 본교생 260명에게 각 단과대별로 '교학과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서비스 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지만 조사대상 85% 이상이 '만족'이라고 답한 불교대의 예에서 보듯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과대에서 '만족'의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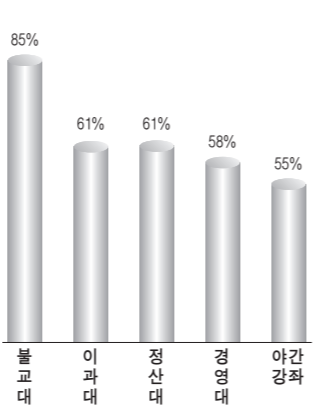
그러나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지만, 12개중 8개 단과대의 학생들은 '만족' 보다 '불만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단과대에서 50% 이상이 '보통'이라는 응답했고, '만족'과 '불만족' 응답 차이는 최대 29%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교학과와 서비스 질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단과대마다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과대의 경우 '매우 만족'이 5% '만족'이 27%로 전체학생의 32%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한 반면, 2개 단과대는 '만족'한다고 답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불만족' 답변이 많았던 단과대의 한 학생은 "교학과에서 다른 부서로 업무를 미뤄 여러번 시행착오를 겪은 뒤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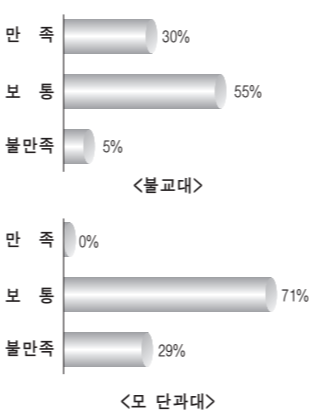
몇해 전부터 일선 관공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현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다가가고 있다. 대

서비스 태도 만족도 Best5



학생에서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교학과의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현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다가가고 있다. 대

서비스 질 Best & Worst



큼, 앞으로 행정도 학생 지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부 dmz@dongguk.edu

동원학술상 논문 공모 대학원생 대상으로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주환·사학과 박사과정)는 제3회 '동원학술상' 논문을 오늘(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접수한다. '동원 학술사업비'를 조성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본교 대학원 재·휴학생과 수료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인문·사회·자연·공학계열별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각각 1명씩 시상하며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차심사를 거쳐 2차 공개 심사 후 최종결과는 11월초에 발표된다.

문과대, 선전학교 열어 14일부터 명진관 205호

문과대 학생회(회장=이재광·철4)는 오는 14일부터 3일간 명진관 205호에서 선전학교를 연다.

이번 선전학교는 14일 오후 6시, 15일과 16일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하며 △첫째날=선전학교의 의미, 선전물별 특징과 재료 설명 △둘째날=창작 선전을 겨루기와 평가, 졸업식이 진행된다.

참가자격은 신청서를 접수한 문과대 학생이며, 접수는 명진관 2층 학생회실에서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이재광 학생회장은 "정치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을 습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걸렸네" ... 지난해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 부족으로 중지되던 10부제 운행이 지난 3일부터 재실시되고 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부착 등 다소 강제적인 제재가 가해지지만 하루 평균 20여대의 차량이 10부제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취업자료실 업그레이드 개장 도서·컴퓨터 설치 ... 손쉬운 정보 접근 기대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취업지원팀이 개강을 맞아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실을 확대, 개장했다.

기존 취업자료실 옆 교육개혁추진단 자리에 위치한 자료실은 취업 관련 책들과 검색을 위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자료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이 보다 손쉽게 취업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본교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취업지원단에 '메일링 서비스 신청'란이 추가 신설됐다.

메일링 서비스는 학생 개인의 신상정보에 따라 특성에 맞는 적절한 취업을 알선하고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는 20일부터 신청자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다.

추계야구대회 예선 2승 오늘(10일) 고려대와 경기

'추계대회연맹전'에 출전하고 있는 본교 야구부(감독=한대화)가 지난 8일 열린 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 건국대에 3대2로 이겨 2승을 기록했다.

지난 5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예선은 4개조로 나누어 풀리그로 진행되며, 조별로 상위 2개팀이 8강 결승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된다.

본교는 대회 둘째날인 지난 6일 인하대에 5대2로 승리했으며, 오늘(10일) 오전 9시 동대문구장에서 고려대와 경기를 갖는다.

야총, 12일 전학대회 개최 학제개편 대응 논의 등

야간강좌총학생회(회장=양희장·반도체과과학3)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오는 12일 개최된다.

이번 전학대회는 학제 개편 문제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하반기 사업계획서 인준 △상반기 감사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야간강좌 경영대 학생회실이 동국관 M동 5층 흡연실 자리에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공간점거투쟁까지 벌였던 야간강좌 경영대 학생회(회장=이상현·경영2)는 학교측과 협의를 통해 흡연실을 학생회실로 사용하게 됐다.

한글대장경 완간 월운스님 만나

"대중에게 한 발 다가가는 계기"

37년동안 318권 간행 ... 지속적인 보완 해나갈 것

고려대장경이 37년의 노력 끝에 318권의 한글대장경으로 다시 태어났다.

1964년부터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단 3대 사업의 하나인 팔만대장경의 국역사업을 진행해온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을 만나 한글대장경 완간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작업 과정과 힘들었던 점은

= 1964년 역경원이 설립되고 그 이듬해부터 '장야합경'을 시작으로 매년 8권씩 간행됐다. 1980년 초대 원장인 윤허스님의 입적 이후 한때 침체되었으나 1993년 번역가들의 세대교체와 함께 7년 동안 185권을 간행하는 노력을 통해 비로소 완간됐다. 그러나 신도들의 무관심과 종단의 재정지원 감소로 수 차례 중단 위기를 겪었고, 한문과 불교에 능통한 전문 인력을 구하는데 상당기간 애를 먹었다.

- '한글' 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의 의미는 무엇인가.

= 이번 완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경전을 접할 수 있고, 한글 세대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고 본다. 고려대장경은 '호국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한다. 흔히들 불교경전이 고리타분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슬우화만만큼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고, 경전내용도 다양해 불교교리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 이번 완간은 '말'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가이드북을 만들어 항목별로 정리하고 내용상의 어려운 부분이나 문맥에 맞지 않는 구절들의 수정·보완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현재 대장경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출> choi55@dongguk.edu

4학년 최저수강신청 학점 완화

이번 수강취소기간부터 3학점으로

이번 학기부터 4학년 학생들의 최저수강신청학점이 12학점에서 3학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9월 말로 예정된 수강취소기간부터 4학년 학생들은 3학점 이상만 수강신청하면 된다.

지난 4월 학사내규 개정으로 그동안 졸업학점을 이수하고도 부득이하게 12학점을 초과 수강했던 4학년들의 불만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4학년의 경우, 졸업학점 이

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한 학기에 12학점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4학년 학생은 "그동안 취업준비와 강의를 병행하느라 늘 시간에 쫓겼다"며 "더욱 충실히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 학사지원실은 수강취소기간 동안 공고문을 통해 변경된 최소수강학점을 4학년 학생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회전무대

불성객

O...동약 곳곳에 하얀 이음표(?)를 붙인 차들이 종종 보인다는데. 알아보니, 학내에 10부제가 시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위반확자가 붙은 차량이 많다고. 제도를 무시한 채 몰고 나온 차 때문에 정차 해당되지 않는 다른 차는 주차구역이 없어 헤매는 경우까지 생기기.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지금 오신 차량은 0으로 끝나는 차이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심동체(?)

O...과학관에 청천벽력(?) 떨어저 근처 명진관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심기가 불편했다는데. 알아보니 과학관 창틀 교체 작업 중 유리를 깨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해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는 예정되어 있는 공사인 민클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을 정했어야 하는건 아닌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학교와 학생은 이심동체(二心同體)!?"

진실게임

O...학생들이 사기 당했다(?). 개강 2주째에 접어들어 요즘 불만스러운 얼굴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눈에 띈다는데. 알아보니 일부 교수님들이 수업방식을 수강정정 기간이 지난후에야 밝혀 학생들이 수업을 정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는 수업을 들어보고 수강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정정기간의 의미를 퇴색케 하는건 아닐는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수강 정정기간의 의미, 그것이 알고 싶다"

집착

O...본교에 재학중인 연예인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면 수업진행에 방해가 된다는데. 알아보니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 몰려든 학생들이 강의실 밖에서 떠들거나 자신의 수업까지 빠지면서 연예인을 기다리는 등 소란을 피우기 때문이라고.

연예인들에 대한 애정도 좋지만 때와 장소는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학교는 온다. 목적은 따로 있다!?"

학복위 가을 특강 & 교양강좌

● 어학특강

1. 개강 : 9월 17일(월)
2. 공개강의 및 환불기간 : 9월 17일(월)~19일(수)
 - * 공개강의의 기간동안은 수강증을 끊지 않으셔도 수업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위의 기간동안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공개강의의 시간은 정규 수업시간과 동일합니다. 모든 과목의 수강료는 교재비가 제외한 가격이며 교재는 따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구내서점 10% 할인)
3. 접수 : 9월 3일(월)~9월 21일(금). 접수장소는 구내서점 및 학생복지위원회(다량관)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9월 3일(월) 이후 학생복지위원회와 학내 곳곳에 비치되어있는 포스터와 자료집을 참고하시거나, 학생복지위원회로 문의하세요. ☎ 2260-3681, 2276-1950

강좌명	강의시간	강사명	수강료	강의기간	강의실	기타
TOEIC 테이마이티	오후 4:00 ~ 5:20	박혜숙	30,000원	8주(화~금)	J201	모의토익 1회 실시
ULS TOEIC	오후 4:00 ~ 5:20	이영상	50,000원	8주(월~목)	J404	50명 정원, 모의토익 3회 실시
이익훈 TOEIC	오후 6:00 ~ 7:20	이혜리	50,000원	10주(월~금)	J201	모의토익 1회 실시
이카테이 신형향 TOEFL	오후 6:00 ~ 7:20	정주현	30,000원	8주(월~목)	J404	모의 토플 CBT 2회 무료 제공

● 교양강좌

논과 틀이 무르익듯이 우리의 마음과 머리도 풍성해지는 계절, 가을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무료강좌입니다.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의 품과 마음을 활짝 열고 좋은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주 제	강사 및 초대손님	시 간	장 소
교 육	영어청취 & 토익 LC 고득점 학습법	이익훈 선생님 (現 이익훈 어학원 장)	오후 1시	중강당
사 회	인문개척: 우리 언론의 나아가야 할 방향	손석춘 기자 (現 한겨레신문 여론매체부장)	오후 1시	다량관 세미나실
문 화 / 문 화	시와 노래가 함께 하는 뒷밭: 우리의 대학생활	니콜꽃(이지상, 홍순관, 이수진), 정호승 시인, 신경림 시인	오후 2시	중강당

학생복지위원회

제1회 사회봉사기관 박람회 [가을학기 사회봉사 희망자 신청·접수]

동국참사람봉사단 제1회 사회봉사기관 박람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박람회 일시 : 2001. 9. 12(수) 09:00~17:00 『1일간』
2. 장 소 : 도서관 앞
3. 참 여 기 관 : 공공기관, 사회단체, 청소년복지단체, 지역사회복지단체, 장애인단체 등 30여개 기관 및 단체

* 사회봉사 박람회 기간 중 봉사 대상기관을 본교에 초청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동국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가을학기 봉사활동 신청 기간은 9월 12일(수)~14일(금)까지이며,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박람회 기간 중 봉사기관에 직접 신청하시던 봉사기관 및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사회봉사박람회 기간 중 후원자 모집 및 1:1결연, 학부과별·봉사대 상단체별 결연을 신청 받습니다.

▶ 봉사대상단체와 봉사기간 및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국참사람봉사단

제16회 추계명찰순례

1. 순례일자 : 2001. 9. 21(금) ~ 9. 22(토) <1박2일>
2. 순례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
3. 참가대상 : 전 동국인(45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4. 참 가 비 : 오전원 (₩5,000)
5. 접수기간 : 2001. 9. 11(화) ~ 9. 19(수)
6. 접 수 처 : 본관 3층 학생복지실 ☎ 2260-3048
7. 출발일시 및 장소 : 2001. 9. 21(금) 오후 4시 정각원 앞

학 생 처

졸업앨범 재촬영

일 자	해 당 단 과 대
9월 13일	불대, 예술대, 사과대, 이과대, 생자대
9월 14일	사범대, 문과대, 공대, 정산대
9월 15일	아부대

1. 대상 : 4학년 2학기 복학생, 1학기 때 사진이 잘못 나왔거나, 미촬영자
2. 장소 : 팔정도 주변, 혜화관 앞
3. 촬영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4. 궁금하신 점은 졸업준비위원회 ☎(2260-361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준비위원회

IMF 졸업, 경제위기 극복인가 논란

근본 패러다임 변화 없는 '낙제생 졸업'

1997년 겨울, 그야말로 도둑처럼 다가왔던 외환위기는 세 살 먹은 어린이에게까지 IMF와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키면서 우리 삶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지난 달 말, 정부는 드디어 IMF위기 극복을 선언했다.

사실, 발에 차일 정도로 많은 경제학자나 경제전문가들 중에서 그 누구도 경제위기의 도래를 심각하게 경고한 이는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IMF졸업이 허울 좋은 것일 뿐 위기는 극복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자가발전적인 홍보에 불과하다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내거나, 오히려 지금부터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협박을 할만큼 흥분한 심정은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너무 많은 경제전문가들과 정치인, 그리고 언론들이 IMF위기 직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한국경제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같은 하수가 가세할 필요도 없다고 할까.

그러므로 오히려 수출증가율이 몇 %냐는 등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느냐는 등의 구체적인 문제보다 IMF위기 이전과 '졸업' 이후의 한국경제 패러다임에 얼마나 유의

미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어찌 보면 추상적이고 거대담론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싶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여전히, 그리고 어쩌면 더욱 절망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발견한다.

한국경제 위기의 뿌리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한 경제개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때로는 죽고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에서 노동력을 억압하면서 자본을 선별적으로 육성해나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노동자의 권리는 군홧발에 짓밟혀야 했고 성장의 과실에 대한 정당한 분배요구는 수출입국을 위한 산업전사라는 명에 앞에 숨죽여야 했다.

성장의 주역인 동시에 과실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아닌 재벌이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형식적인 민주화 결과 더 이상 노동을 알아서 짓밟아줄 수 없는 정부, 이미 덩치가 커질대로 커진 재벌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간섭만 해대며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는 정부란 재벌에게는 거주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이제는 오히려 정부가 재벌에게 끌려가는 상황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던 과

정에서 외환위기가 터진 것이다. 96-7년 겨울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그에 대항한 총파업은 결국 국가의 장악력이 떨어져 가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게 된 자본과 노동의 헤게모니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는 순식간에 이 모든 상황을 정지시켰고, 국가는 일시적으로나마 장악력을 다시 회복한 듯 보였다. 당연히 국가의 과제는 경제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던 재벌체제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자본과 노동의 민주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어야 했다.

잊혀진 위기극복의 과제

그러나 박달이나 워크아웃이니 하면서 지루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위기의 무서운 기억은 차츰 잊혀져 갔고 시스템으로서의 재벌은 여전히 튼튼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구조조정이 정리해고의 동의어로 대중들의 머리 속에 각인되는 동안, 자본과 국가는 책임을 서서히 면제 받아 갔고 노동에 대한 규율기제는 새로이 확립되었다.

기업들을 외국에 팔아 치우고 공적 자금



류 동 민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을 투입해가며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국가의 '공적'이 인정받기보다는, 그리고 도 깔보는 중국에서조차 이미 실시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나 노사정위원회조차 '사회주의'라는 색깔공세에 시달리는 사이에 자본은 어느새 권력을 다시금 우뚝 세우게 되었다.

세계화와 정보통신혁명의 와중에서 미국이 고삐에 걸리면 우리는 폐렴에 걸린다는 경제체질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경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자는 대통령과 언론의 애국적 호소에 하릴없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문득 졸업식 때마다 상투적으로 되풀이되던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축사가 생각난다. IMF '졸업' 또한 새로운 시작일 따름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방정맞은 예감에 휩싸인다.

이적규정 9년차 범민련의 과제

대중화 위한 노력 인정 받아야

'주홍글씨'는 평생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채 살아가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장=이종린, 이하 범민련) 역시 이적규정이란 굴레가 주홍글씨처럼 작용해 오랫동안 '사회적 낙인'을 벗지 못하고 있다. 범민련은 8.15 평양축전 파문에서 간부 5명이 구속되면서 가장 큰 피해자로 떠올랐지만 언론의 주목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지난 90년 출범 이후 범민련은 남과 북, 해외에 지역 본부를 두고 3자연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통일운동을 펼쳐왔다. 이에 정부는 3자연대 운동방식이 북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전형적인 이적활동이라며 92년 이적단체 규정을 내린 후 지금까지 발을 묶어놓고 있다. 특히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제7차 범민족대회 때는 사상 유례없는 가혹한 공안 탄압이 벌어져 1천명 이상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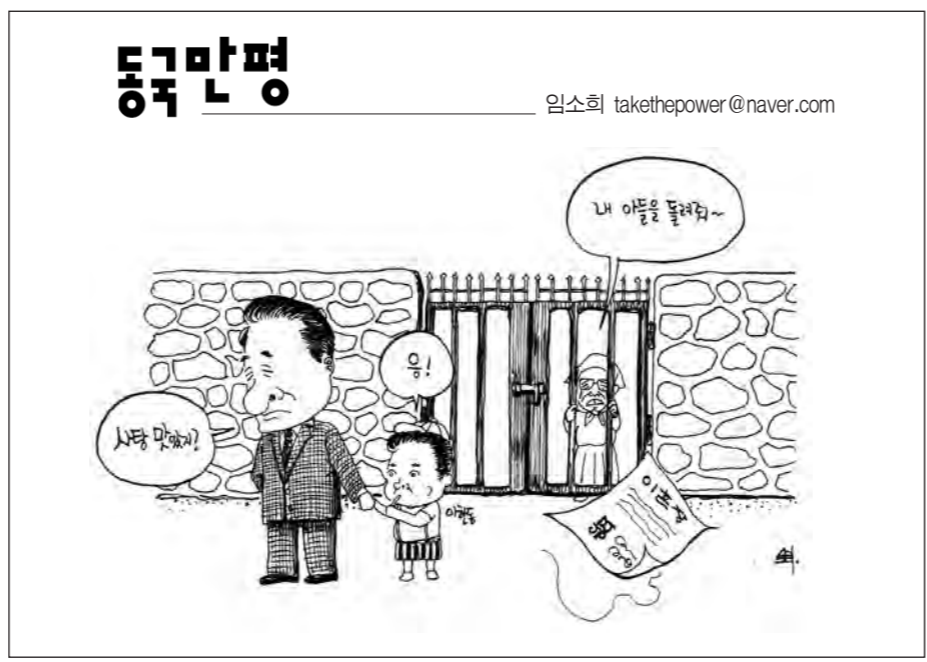
범민련의 3자 연대 방식은 때로는 시민단체들의 비판도 감수해야 했다. 민화협외한 관계자는 "3자 연대에 치우치다 보니 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범민련의

달라진 행보가 눈에 띈다. 지난달 29일 범민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8.15 평양축전 기간 동안 열린 '남북해의 3자협의회'에서 합의한 범민련 강령·규약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된 범민련 강령과 규약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방안과 관련해 연방제 방안 삭제 △'범민족대회' 관련 조항 완전 삭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적규정의 근거가 되어온 연방제 방안과 매년 정부와 총통을 불러일으켰던 범민족대회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은 앞으로 범민련이 합법적이고 대중적으로 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정부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번 8.15 평양축전에서도 범민련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방북 전 북측 본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간부 5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범민련이 강령·규약을 개정했다더라도 본질적인 활동내용은 변하지 않았으며,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북과 접촉하는 등 여전히 이적성을 띠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범민련 민경우 사무처장은 "문제가 된 연석회의는 작년 하반기부터 논의되어 왔던 강령·규약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모아 6.15공동선언 이행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범민련만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민련이 방북전에도 북측 본부와 교신을 취한 것을 알고 있던 검찰이 당시에는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다가 평양축전이 파문을 일으키자 주목하는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범민련 이종린 의장이 "정부와의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으며 6.15정신의 틀 안에서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고 밝힌 것처럼 범민련은 앞으로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범민련의 활동을 제약해온 이적규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범민련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이마저도 문제가 되도록 만든 것은 이적규정 때문이었다. 오랜 기간동안 주홍 글씨보다 강렬한 빨간 색으로 낙인찍혔던 범민련의 변화 노력을 도와주지 못하고 예전처럼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은 통일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일 것이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사설

강정구 교수는 돌아와야 한다

만경대 방문록 사건으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 본교 강정구(사회학) 교수가 구속적부심 신청에서도 기각판정을 받았다.

강교수가 구속된 것은 지난 8.15 평양행사 참가 중 만경대 방문록에 남긴 '만경대 정신'이란 표현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었다는 이유에서이다. 강교수는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함일민족정신"을 나타내는 만경대 정신은 평소 본인의 학문적 분석 속에서 나온 것이며 김일성 주석 가문이나 주체사상을 찬양할 의사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해명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침소봉대된 '사소한 잘못'이었고 해석의 문제였던 것이다.

게다가 몇달 전 서울대에서 주체사상 강연회를 열었던 것과 집,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발견된 몇 권의 북한관련 자료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어이없이 적용됐다. 한마디로 '금서'를 봤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전과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북한을 이해하는데 기본토대가 되는 주체사상 토론회가 여러 번 열린 바 있다.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학문연구에 전념해온 학자로서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닐까. 더욱이 토론자료집 보관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치부한다면 학문연구의 양심과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본다. 현재 검찰은 방문록 글귀보다 강교수의 이전 학술활동에 수사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것 같다. 만경대 방문록만으로는 적당한 명분을 찾지 못해 자꾸만 과거행적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닌가. 검찰은 더 이상 사건을 왜곡·확대하는 것을 멈추고 강교수를 학생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대학 성문화, 개방적인 눈으로 지켜봐야

얼마 전 간호학과가 준비한 'safe sex' 축제는 온방골 전체에 '열풍'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대학 내 성문화를 되짚어보게 만든다. 하얀 가운을 입은 백의천사들이 동악을 활보하면서 열변했던 안전한 성, 그것은 낙태방법에서부터 피임, 성병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아주 뜻깊은 노력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권력은 성의 몸통을 꼭 붙잡는 양팔'이라고 말했던 미셀 푸코의 주장처럼 권위주위에 사로잡힌 또 다른 목소리가 이들을 가로막고 나섰다. 도대체 열린 만큼 다 열리고, 자유로움 만큼 자유로운 대학사회에서 아직도 성 문체가 금기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들을 향한 학내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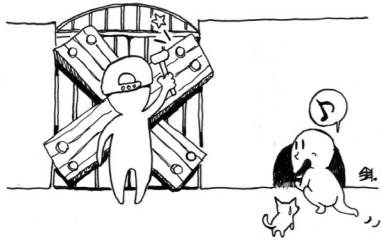
그러나 대학 내 성문화를 바라보는 학내 여론 사이의 신경전이 학내 콘돔자판기 설치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충격적이다. 지난 학기부터 콘돔자판기 설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모아졌지만, 학교는 대학 내 성생활이 더 이상 문란해져서는 안 된다는 반응으로 일축하고 있다. 성은 물과 같아 고이면 썩는다. 이 대답은 관능을 탄압하던 중세시대 지화로 숨어든 성문화가 얼마나 부패했단가를 떠올리면 더욱 자명해진다.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의 성 의식은 커피 동거가 가능하다고 답할 만큼 개방적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피임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쯤에서 대학사회는 성 문제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성은 이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을망정 모르는 것이 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열풍'들을 조용히 지켜보자. 이제 그들을 바라보던 뜨거운 시선을 거둬둬야 한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김호성, 부주장 백승석,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은선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이메일 ID dgupress, 나무누리 ID 동대신문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658, 팩스 (054)770-2657

동약로

무한정정



“저 수업 정정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어휴, 학생들이 계속 불러드네.”

학사지원실은 지난해 2학기부터 수강정정 기간 중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정기회를 3회로 제한했다. 시행 초기 학생들의 숙지부족으로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지난 1학기 이후로는 정착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주전 진행됐던 이번 학기 수강정정은 조금 사정이 달랐다.

“야, 이것 보라. 이렇게 하면 계속 바꿀 수 있다.”

“우와,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가르쳐줘.”

2학기 수강정정 기간동안 많은 학생들이 입소문을 통해 퍼진 편법으로 3회 이상 수강정정을 바꿀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수강정정 제한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도 어이없어 할만큼 아주 우연한 일이었다. 학사지원실도 즉시 이번엔 발견된 허점을 보완했다.

그러나 사이버 강의, 사이버 총회 등 앞으로 학생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 참여하는 활동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해결하던 일을 네트워크화된 컴퓨터로 대신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서는 운영 프로그램 등 기반시설이 확립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허술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수강정정이 끝날 때까지 누구 하나 교과과나 학사지원실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학사지원실 관계자의 말처럼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고정신이 없었다는 점도 아쉽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행정상의 실수는 학생들의 신고 없이는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이버 학사 운영이 정착하기 위한 학교와 학생 모두의 노력을 기대한다.

김도영 기자
cirus@dongguk.edu

한국사회의 보수주의를 말한다

‘건전한 보수’는 어디에도 없다

반공·반북주의로 변질 ... 본래의 이념으로 거듭나야

보수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같은 대북정책이나 주5일 근무제 등 노동정책을 ‘이적’ 내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맹렬히 공격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스스로 보수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변혁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80년대 말부터였지만, 제도권 정당이 보수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방한 것은 불과 5년전 15대 총선 무렵부터였다. 당시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의 3당은 모두 자신이 ‘원조’ 보수주의 정당임을 외치면서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다른 개혁정책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지금 자민련이 보수주의를 외치면서 공조체제를 파기한 것이나 한 나라당이 보수주의를 내세우면서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을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서구의 보수주의는 18세기 무렵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며 어떤 종류의 사회적 불평등이나 정치적 부자유는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보다

는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관습, 또는 역사와 경험에 입각하여 사회의 구성원리와 규범을 도출했다.

진정한 보수, 탄력적 개혁 수용

따라서 이들 서구의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부자유를 급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그러나 서구의 보수주의자들이 모든 종류의 개혁이나 변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관습의 근저에 있는 도덕적 가치에 부합하거나 그것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다. 서유럽의 보수정당들이 복지국가를 지지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처럼 서구의 보수주의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나 원칙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였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와 개혁은 탄력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또 국가사회주의의 부정적인 요소를 교정하는데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서구의 보수주의와는 달리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서구에서 수입한 반공주의, 보다 좁게는 반북주의와 시장주의 이외의 다른 원칙을 표명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유교전통과 권위주의체제의 산물인 국가주의와 반공주의에 내포되어 있는 반국가주의를 동시에 포괄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다. 또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반공주의는 공산주의 일반에 대한 반대라는 특성보다는 북한공산주의라는 특수한 대상에 대한 반대라는 성격이 강하고, 북한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원칙의 경우에도 미국의 정책이나 태도에 따라 들쭉날쭉 해왔다.

보수로 포장된 한국 수구세력

보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한국의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친일이나 부패와 연관되어 서구의 보수주의자,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국의 보수주의자와 정당들은 철학적 기반도 취약하고 논리적·실천적 일관성과 도

덕적·역사적 정통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5일근무제와 같은 노동정책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거나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한국의 보수주의는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치욕의 역사와 사회악을 두둔하는 수구주의로 머물러 왔다.

한국의 보수주의가 서구의 그것처럼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에 남아 있는 오염된 과거와 부패를 청산해야 한다. 나아가 철학적 기반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과 대안을 개발한 후 이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영태
인하대 사회과학부 교수



사회 각계의 뿌리깊은 보수세력

다양한 사상정립으로 사회발전 기반 마련 필요

‘남이 모르거나 하지 아니한 것을 처음으로 또는 새롭게 밝혀내거나 이루는 일’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창발성’이란 단어의 정의다. 하지만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취임후 ‘교육이 창발력있는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며 이 단어를 자주 언급해 논란을 겪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북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닌가’라며 용어의 사용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부터 보이는 것은 오랫동안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해 기득권을 누려왔던 전형적인 ‘한국형 보수주의자’의 모습이다.

보수주의가 뿌리깊게 파리를 뜯는 곳으로 우선 정치권과 언론을 들 수 있다. 정치권에는 내용과 추구하는 가치를 떠나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수도룩하다. 또한 조중동이라는 말이 고유명사로 자리잡게끔 한 일부 언론사 역시 우리 사회의 대표적 보수세력으로 불려지는데 손색이 없다.

한편, 언론사 사무조사는 지식인들이 사무조사와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

히면서 사회에 ‘커밍아웃’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을 더욱 구별하기 쉽게 만들 계기가 됐다. 대표적인 보수 지식인으로 꼽히며, 어느새 문화권력으로 자리잡은 작가 이문열은 세무조사에 동조하는 시민단체들을 ‘홍위병’이라 규정해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외에도 지식인 사회에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매체에 활발한 기고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석준(연세대 사회학)교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함재봉(연세대 정치외교학)교수와 송복(연세대 사회학)교수, 이인화(이화여대 국문학) 교수 등이 대표적 보수주의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스스로를 정통을 잇고자 하는 보수주의자로 자처하지만, 진보적 지식인으로부터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수구세력이며 기득권을 옹호하는데만 열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혁 갈등과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분야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종교계. 최근 정부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사무조사 보수 교단을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를 반대하

고 나섰다.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명시한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를 반대하는 근거는 십계명의 가르침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엄격한 해석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주로 교계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십계명의 자구 하나를 지키는 것이 세계 최장 근무시간을 견뎌야 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보다 중요한가”라고 반문한다.

우리사회의 보수세력들은 주류세력이라 불려도 큰 무리가 없다. 그만큼 사회의 기득권을 독차지하면서 특권층으로 군림해왔기 때문이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말처럼 다양한 사상의 정립은 사회 안정과 발전의 전제조건이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새는 날개만이 아닌 건강한 몸통이 있어야 제대로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인터넷 속 젊은 보수바람

N세대, 네트워크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인터넷이 불러일으킨 현대사회의 특성 중에는 다양성이 있다.

조선일보 조감제 기자의 홈페이지를 보면 그의 ‘활약상’ 만큼이나 다양한 의견들이 게재되어 있다.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은 물론이고 이번 달에는 월간 조선도 정기구독 했다면 줄줄이 ‘조선시리즈’를 구독하는 것을 자랑삼아 열거하는 조기자의 열성팬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애국신문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저는 한겨레 보던 친구들도 조선일보 보게 했어요”라며 신문관축에도 한몫을 한다.

그리고 “통일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북진해서 김정일로부터 북한을 해방시켜야 한다”며 시대의 흐름을 무시한 채 이승만 시절의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는 가 하던 자신을 애국청년이라 밝힌 한 네티

즌은 “인간 김대중 할아버지는 대중이라고 불려도 대통령은 각하라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이다”라며 나름의 애국론을 펼치기도 한다.

이밖에도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인 국가보안법을 어찌 폐지코자 하느냐며 ‘반국가활동을 하는 무리’를 나무라는 모습도 보인다.

비단 이 두 사이트뿐만 아니라 인터넷 여가지기에서 보수주의자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양성이라는 바람을 타고 온 젊은 보수의 움직임은 말이다.

<진>
yearn@dongguk.edu

발전기금 ARS 7000-119

작은 빛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룹니다!

우리나라는 거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국의 대작불사를 전개해 왔습니다. 신라시대에는 황룡사와 불국사를 건립했고, 고려시대에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선각자들의 가르침으로 민족의 어둠을 밝히고 나라를 일으켜온 동국의 찬란한 100년!

지금 우리는 수도권 불교종합병원 건립의 대원력을 세워 이땅에 불국정토를 구현하려 합니다. 작은 빛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인연있는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을 모으면 그 공덕은 수미산과 같습니다.

오늘도 동국은 10년 후, 100년 후를 생각해 우리시대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부속
불교종합병원
2002년 가을 개원!



병원건립기금수시접수
동참문의 (02)2260-3300
ARS전화 (02)7000-119
직접방문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퍼스널 로봇, 21세기 인간의 동반자

단절된 일터에서 우리 생활 속으로 ... 세계공략 위해 표준화 진행해야

■ 분야별 이색 로봇 ■

가정용 로봇

- **CYE** : 청소기를 끌고 다니며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무거운 물건을 나른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낯선 사람이 집안에 침입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 **ROVERBO** : 분고 기계공학과 자동차 제어 소모임인 'MAC'에서 개발한 것으로 스스로 이동하며 청소하는 진공청소기 로봇이다.
- **커피손이** : 기억프로그램에 저장돼 있는 이용자의 취향에 맞추어 커피를 준비하는 로봇이다. 준비된 컵에 뜨거운 물이 적당량 채워지면 로봇은 팔 끝에 달린 플라스틱 스푼을 이용해 커피와 설탕, 크림을 퍼올리고 뜨거운 물에 잘 섞는다.

의학·복지로봇

- **재활보조용 이동 로봇** : 노약자나 장애인이 실내에서 혼자하기 어려운 일들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 **내시경용 캡슐 로봇** : 장기내부를 촬영하는 직경 1mm 내외의 초소형 카메라를 비롯해 조직을 떼어내는 핀셋, 집진 의사에게 장기 내부 영상을 보낼 수 있는 통신기기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위 속의 산도와 온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도 내장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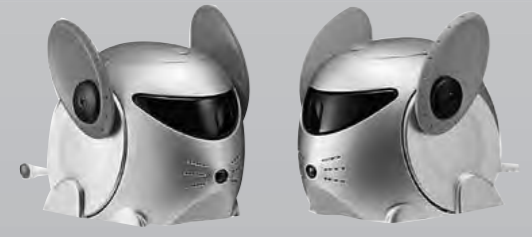
위험로봇

- **Telerob & MECO** : 화재진압용 로봇으로 불의 중심점을 감지해서 움직이므로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화재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설계된 로봇이다.
- **위험작업용 원격조종 로봇** : 군사목적 지역이나 핵시설 및 화재장소와 같은 위험장소에서 원격 작업이 보다 원활히 수행되도록 돕는 로봇이다.

교육·오락용 로봇

어린이들의 학습을 돕는 로봇과 축구게임을 즐길 수 있는 '축구로봇'이 보급되고 있다. 세계 로봇 보유대수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일본도 이 분야를 공략하기 위해 애وان을 기울이고 고안이 로봇을 출시했다.

정리=학술부
brain@dongguk.edu



인류가 수레바퀴를 발견했을 때처럼 로봇의 출현은 기계가 발전하지 못했던 시대부터 예견되고 있었다. 수레가 인류의 생활과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로봇은 앞으로 사람의 삶과 생활형태에 다양한 문화와 영향력을 가지고 다가올 것이다.

인류는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 디지털/나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많은 개발품들이 하루에도 각종 연구소나 대학, 기업들로부터 발표되고 있고 인류의 생활상은 급속도로 과학기술을 통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과연 로봇분야가 앞으로 인류의 생활과 문화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한국 로봇연구의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 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로봇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적=로봇적?

일반적으로 전자공학이나 제어공학 또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공학도에게 로봇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다면 100% 정확한 답변을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 현재, 로봇의 정의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로봇을 사람의 능력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사람의 운동능력, 감각, 감성, 지적능력, 생명력, 번식력, 모양 등 사람의 일반적인 능력과 비교하여 뛰어나든지 인간의 능력에 가까울수록 가장 로봇적이고 그렇지 않을수록 가장 로봇적이지 않다.

그러나 흑백논리로 이것이 로봇이고 저것은 로봇이 아니라고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현재 없으며 '로봇적'이라는 평가 기준도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로봇에 대한 인간의 이런 심리는 인형과 같이 제2의 분신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싶어하는 욕구를 보여준다.

발달과정 짚어보기

기존 로봇에 대한 개발은 산업용 로봇에서 시작했다.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어 온 산업용 로봇은 도구에서 기계로 대체해 가면서 시작된 기계의 자동화 과정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능 중 극히 일부를 제한적으로 대신하는 정도였다. 산업용 로봇은 기계 또는 생산라인 자동화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형태면이나 기능면에서 발전해 왔는데 기존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값싼 제품을 선호하던 70년대의 대량생산방식인 자동화시스템이 그 이후로는 가격보다는 보다 개인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해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로 발전하게 되었다.

구소 뿐만 아니라 대학내 로봇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다양한 국산 제품들을 만들어 냈다.

인간과 환경에 적응

21세기의 로봇분야의 화두는 퍼스널 로봇 분야이다. 산업현장에서 일반인들로부터 단절된 로봇들과는 달리 퍼스널 로봇은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인간 생활과 환경에 적응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꺼리는 일들을 담당하게 될 퍼스널 로봇은 서비스 로봇이라고도 한다. 로봇은 쉬지도 않으며 자동차를 관리하듯 정기적인 관리만으로 사람의 생활과 환경은 온통하게 하는 적절한 도구로 쓰여질 것이다.

국내에는 몇몇 퍼스널 로봇을 연구하는 기업이 있다. 아직까지는 국가적 연구환경이 열악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세계 시장을 향해나가는 회사들의 신제품 개발 시도는 다양하다. 현존하고 있는 로봇벤처기업 중에 구미에 소재하고 있는 (주)다진시스템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봇을 비롯해서 케이크 데코레이션 로봇, 사물놀이 로봇, 안내로봇, 청소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무시, 교육용 로봇 로보스, 로봇 장난감 도디나미미 등 다양한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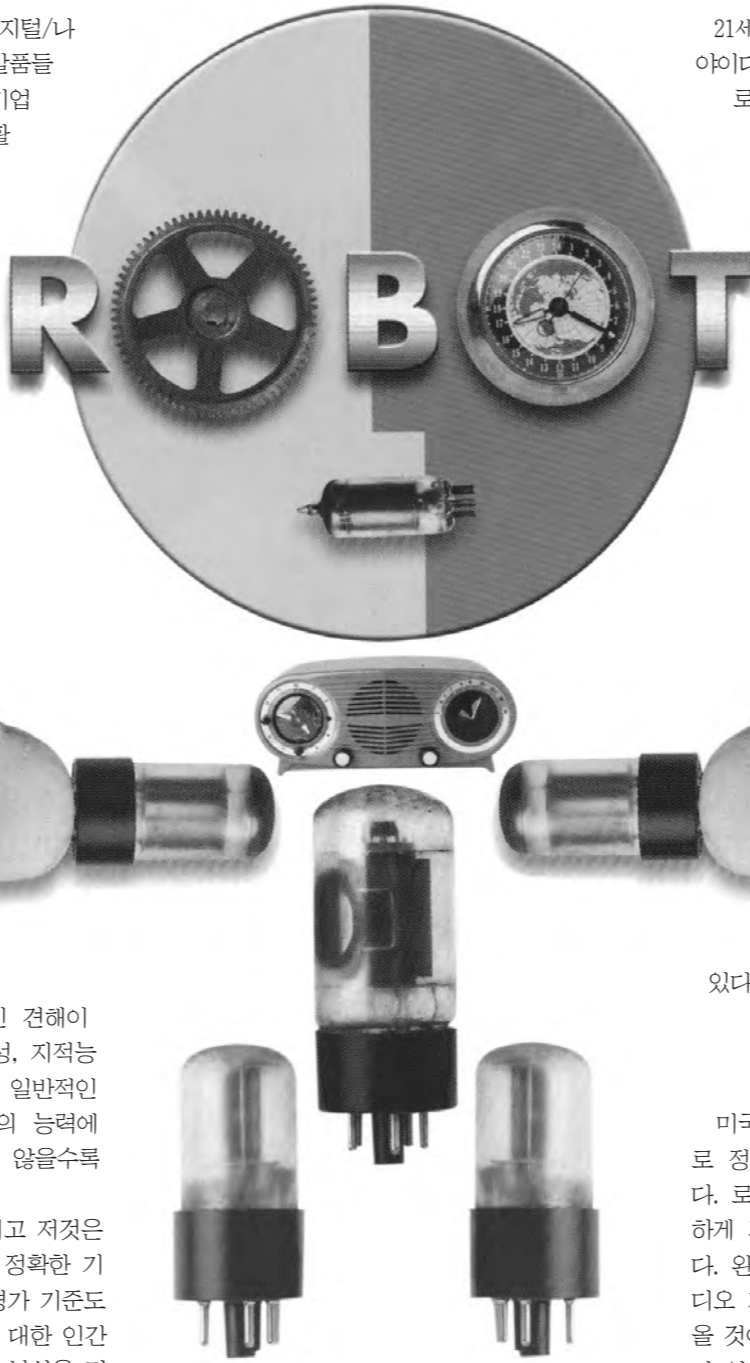
국내 로봇기술의 미래

미국을 비롯한 일본은 이미 로봇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로봇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로봇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을 표준화하게 되면 세계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완구시장의 관리를 바꾸어 놓을 것이며 비디오 게임에 심취해 있는 PC 매니아들을 끌어올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표준화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표준화는 반드시 교육을 수반한다.

즉, 로봇 교육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각 대학과 사립학원에서는 표준 로봇 시스템의 교재를 다양하게 양산할 것이다. 유명 교수들을 비롯하여 로봇을 예언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표준화의 완성을 5년 안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하여 2020년부터는 일반 PC시장에 버금가는 시장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각 로봇 기업과 대학에서 끊임없이 표준화 시도를 하는 동안에는 한국의 로봇 기술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강정근
로봇정보연구소 소장



인터넷 바다에서 새로운 문학을 낚다

▲김태준 (국어국문학)
=지난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중국 천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비교문화 국제회의에 한국본부 회장으로 참가.

▲성용길 (화학)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학술회의 주제 발표를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와 볼고그라드 방문.

보안소프트웨어 산업동향 세미나

컴퓨터 멀티미디어 공학과 정보통신연구소(소장=이금석·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가 주최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산업동향에 관한 세미나가 오는 11일 열린다.

'Secure M-Cube Services and Technologies'라는 주제로 오후 1시 30분에 원흥관 E103 강의실에서 안철수 연구소 한상학 부사장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암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한암학회(회장=최국진)가 미국 암학회와 공동으로 '미국 암학회 국제학술대회 2001'를 개최한다. '소화기계 암 발생의 분자생물학적 기전과 그 임상적 의의'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20개국 500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사이버문학, 정보사회 문학형태 창출위한 무한 가능성의 세계로

'수하는 건너려던 신호등의 파란 불이 깜박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뛰어서라도 신호등을 건널까? 아니면 멈춰 서서 다음 신호를 기다릴까?'

한창 진행되던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고, 두 개의 아이콘이 독자의 선택을 기다린다. 독자는 잠시 머뭇거리지만 곧이어 하나의 아이콘을 선택한다. 클릭과 동시에 이야기 줄거리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것이 바로 '사이버문학(cyber literature)'의 한 갈래인 '하이퍼픽션(hyper fiction)'이다. 즉, 하나의 소설 속에 다양한 줄거리 전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확산되면서 가상공간이 문학의 새로운 토양으로 등장했다. 이에 수많은 예비작가들이 인터넷 상에 많은 글을 올리기를 시작하고 '사이버문학'이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이러한 사이버문학은 넓은 의미로 '컴퓨터와 통신공간을 토대로 생산, 유통되는 문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창작되는 하이퍼픽션과 인터랙티브픽션(interactive fiction), 동성애문학, 릴레이문학, 멀티픽션(multi fiction)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반면 좁은 의미에서 논의되는 사이버문학의 개념은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그 가운데 계간 사이버문학 '버전'의 이용욱 편집

주간은 "사이버문학은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다시 쓰여져야 하는 문학의 새 역사"라며 가상공간의 창작물을 '통신문학'과 '사이버문학'으로 구분한다.

PC통신 상에서 창작이 이루어지는 통신문학은 창작도구가 컴퓨터로 바뀐 것 외에는 문자만을 사용하는 기존 문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인터넷 상에서 창작되는 사이버문학은 문자뿐만 아니라 음향, 그래픽 등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 그는 "궁극적으로 사이버문학은 기존 문학이 정보사회 패러다임에 제대로 적응하고 자기 경성력을 획득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통신문학과 사이버문학을 구분하는 불분명한 근거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행위' 개념을 사이버문학이라는 하나의 '장르'로 정의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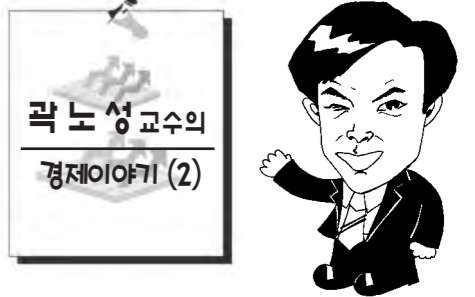
하루하루 마구 쏟아져 나오는 창작물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문학 형태만 취하려는 움직임일 뿐이며, 자칫 조희수를 의식해 흥미위주로 흐르는 독자추수주의나 선정성과 소재주의로 치우칠 수 있어 문학의 범주에 넣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갈수록 핵·지연 등으로 얽혀있는 기성문

단과 상상력이 고갈된 현실 세계의 텍스트들은 문학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때에 사이버문학의 존재와 가능성마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속단인 것으로 보인다.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상상력의 확대, 잠재적 능력을 갖춘 작가를 비롯한 창작인구의 증대, 그로 인한 문학작품의 증가와 함께 비평인구의 확대, 기성문단의 영향력 밖에 놓임으로써 실험적이고 자유분방한 시도가 가능해진 것 등 사이버문학이 지닌 가능성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이제 사이버문학의 주제들은 그들의 텍스트에 일차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문학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문학형태 창출'이라는 과제를 머지않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멋진 경쟁자

'일본제품'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그것은 멋있는 디자인과 많은 기능, 그리고 잘 고장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품질로 일본산 자동차, 가전제품, 음향기기 등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80년대 말 이른바 '거품'의 붕괴이후 아직까지 저성장과 침체로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본경제의 경쟁력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은 미국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의 포터(Michael E. Porter) 교수는 일본산업의 2중 구조를 지적하고 정부의 지원과 정책대상이었던 산업은 오히려 경쟁력이 없으며 그렇지 않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해 온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는 또한 일본식 기업모델이 지니고 있는 일반인 한계와 함께 그 가운데서도 자기만의 독특한 전략을 가지고 성공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일본식 기업모델의 특징은 고품질과 저비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기업보다 우수한 경영행위를 채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사적 품질관리와 린(lean) 생산, 협력업체와의 밀착된 관계를 통하여 많은 모델과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제품을 시장에 내 놓고 종신고용, 직원을 회사자산으로 아끼는 풍토 등과 같은 경영관행으로 서구기업들에 비해 지속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능률 차원의 경쟁으로서 90년대에 들어 경쟁수렴(competitive convergence) 현상으로 인하여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경쟁수렴 현상이란 경쟁기업들간에 동일한 차원에서 경쟁하는 경우 상대방의 품질개선 노력, 생산주기, 공급업체와의 관계 등을 서로 모방하면서 결국 모두가 제철 깎기 경쟁으로 패배자가 되는 상황을 말한다. 포터 교수는 그 대표적인 산업으로 일본의 PC산업을 예로 들었다. 반면 산업 내 기업들이 전략차원에서 서로 경쟁하는 경우 그 기업은 물론 산업전체가 탁월한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전략이란 경쟁자들과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입지를 구축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하는 것을 말한다.

혼다(HONDA)의 예를 보자. 혼다는 처음에 오토바이 생산에서 쌓은 기술력과 스타일링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비디오게임 기업들인 닌텐도, 세가, 소니 등도 각 기업 모두 독특한 전략으로 경쟁하고 있다.

닌텐도는 매년 특출한 게임 한 두 개로 시장을 집중 공략하며 인기하락 게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즉시 철수하는 전략(놀이성)을, 세가는 월등한 기술력과 오락 아케이드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한 밝은 이미지의 홈비디오 게임 전략(영상성)을, 소니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공급하는 전략(가치성)을 각각 구사함으로써 시장의 확대와 수익성 제고라는 산업전체의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멋진 경쟁자는 자기 전략을 가진 경쟁자이며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쟁자이다.



신화를 읽으면

신화는 단지 '신화'가 아니다

찬란한 문화 꽃피운 신화 ... 정치적 활용시 끔찍한 일 초래하기도

최초로 인류가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은 주술이었다. 우리가 흔히 '미신'이라 부르는 주술은 나름대로 그 시대의 인간들이 자연을 정복하는 수단이었다.

주술의 효용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적어도 그것이 자연이라는 공포의 대상과 싸우며 생존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었음에는 틀림없다. 어쩌면 주술의 효능은 심리적 성격의 것이었는지 모른다. 주술이 기대했던 것만큼 실제적 효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주술은 이제 그보다 더 고도의 세계해석의 체계에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신화와 신학이다.

신화는 그것이 사라진 시대에도 인간이 만들어 낸 찬란한 정신적 유산으로 모든 문화와 예술의 영감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신화는 일단 과학적 사유방식에 의해 극복된 사고체계이다. 따라서 이 시대에 신화를 부활시키는 데에는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신화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신적 폭력' 행사 도구로

서구 문명에서 신화는 그리스·로마의 헬레니즘, 신학은 기독교라는 헤브라이즘의 전통을 의미한다. 물론 신화는 중세에 기독교 신학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신학은 근대에 자연과학에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그리고 이때쯤 인간은 자기가 '계몽'이 되었다고, 그리하여 세계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의 문명은 바로 이 근대의 전통 위에서 서 있었다.

그런데 이 근대의 경제적 토대인 시장에 공황

이 발생하고, 근대의 정치적 형식인 의회민주주의가 뼈적거리던 1930년대 독일에서는 느닷없이 신화와 신학이 부활한다. 그리고 이 둘은 좌우의 양측에서 의회민주주의를 공격하더니, 급기야 서로 충돌하고 만다. 용감한 군인들의 세계를 노래하는 우익의 민족신화와 유토피아의 도래를 노래하는 좌익의 종말론 신학(=맑스주의)의 폭력적 대립. 그것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하던 시절 독일의 상황이었다.

나치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정치적으로 인용했다. 그들은 이 신화의 게르만적 버전을 조작해내, 자기들이 우수한 인종인 '북방기마민족'의 후예라고 주장했다. 자기들에게 사회 내의 잡종들을 숙아내고, 열등한 인종을 정복하여 도대시 김으로써 인류의 피를 정화하고 오염된 인간사회를 구원할 사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신학적 사고방식의 끔찍한 결론을 우리는 아우슈비츠에서 보게 된다.

우익의 이 '신학적 폭력'에 좌익들은 '신학적 폭력'으로 맞섰다. 물론 독일에서 이 싸움은 우익의 승리가 끝나고, 신화는 신학을 아우슈비츠로 보낸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신학은 전세계의 절반을 차지하며 에고된 '신적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가령 스탈린의 양민 학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중국의 문화혁명을 생각해 보라.

차가운 이성으로 맞서야 할 때

신화는 우리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한에서만 유용하다. 그것이 정치신학으로 돌변하는 순간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미학을 전공하던 필자가 이런 정치적 글쓰기를 하게 된 것도, 3년 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바로 이 신화를 정치화하려는 파시즘적 경향을 보았기 때문이다.

신화의 정치화는 조선일보의 조각제 기자와 소설가 이인화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우수한 몽골인종인 한 민족이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를 모시고 징기스칸의 후예답게 전세계로 뻗어나가 이민족을 종으로 부리며 살자는 야류 제국주의적 선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죽어서 신이 된 지도자를 위한 신전 건립운동이 일어난 것도 그때였다. 이런 식의 민족신화는 1930년대나 어울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21세기를 바라보는 90년대 말에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아직도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신화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이성이다.

진중권
아웃사이더 편집주간



얼마 전부터 신화 관련 서적이 주간 베스트셀러에서 꾸준한 상위권을 유지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그리스·로마 신화전'이 며칠 만에 관객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듯 신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신화는 그것이 발생한 지역의 민족이 가지는 사상과 문화의 총체이다. 즉 신화를 통해 그들의 민족성과 그들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화에 대한 관심이 그리스·로마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외에도 정치 이데올로기화 되어진 또 다른 신화를 찾아보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에 본지 기획부는 그리스·로마 신화만을 떠올리는 우리들의 신화 편식중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다양한 신화로의 접근을 시도하여 각기 다른 문화를 접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신화가 가지는 의미를 되짚어 보고 경계해야 할 점을 생각해 본다.

편집자

2천5백년을 뛰어넘어 신화가 온다

그리스·로마 신화전, 서점, 라디오 등 열기와 관심 높아져

박카스, 암바사, 나이키, 비너스, 여기 나열한 상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로마 신화에 그 어원을 두고 있는 상표라는 점이다. 박카스는 그리스 신화 속 디오니소스의 로마 이름 바쿠스에서 유래되었고, 암바사는 신의 음료 암브로시아,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인 니케, 비너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로마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열두 달의 이름, 태양계 행성의 이름 등 신화는 우리 주변 작은 부분까지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린 그리스·로마 신화가 최근 새롭게 재조명되면서 신화붐이 일고 있다.

(주)지·에프콤은 오는 30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제우스에서 헤라클레스까지 그리스·로마 신화전'이라는 타이틀로 150점의 진품문화재를 전시한다. 서양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의도 아래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문화재를 통해 서양문화의 원천이 되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숨결을 생생하게 우리 곁에 전달해 준다.

전시된 유물들은 그리스, 로마 당시에 제작된 대리석과 청동상, 프레스코화, 테라코타, 그리스 항아리 등으로, 관람객들에게 수많은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를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인 듯 속삭인다. 이 전시는 전시 40일째인 지난 14일 10만 명을 돌파해 최근 부쩍 더해진 사

람들의 신화에 대한 열기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신화의 열기는 이어져 교보문고와 영종문고에 신화 관련 코너가 새롭게 마련되었고, 라디오 프로그램 '이소라의 FM음악도시' 중 'DJ스페셜'이라는 코너에서는 진행자가 신화를 읽어준다.

또한 민음사는 어린이들도 쉽게 신화를 접할 수 있도록 계열사 황금가지를 통해 일문자가 사토나카 마치코의 '만화 그리스신화'를 발행하는 등 우리 생활에서 신화를 만날 수 있는 부분은 더욱 다양해졌다.

역사가이자 신화학자인 토마스 불핀치는 신화의 가치를 "인간 생존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전쟁과 평화, 삶과 죽음, 선과 악 등에 필요한 지식의 끊임없는 원천이 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신화가 2천 5백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오늘날 그 인기를 더해갈 수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신화는 단순한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위대한 문학 유산인 것이다. 영원히 지속될 삶의 지혜와 비밀을 고스란히 담아낸 인류 공동의 재산, 신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한 인간 심리의 비밀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오늘 신화의 향기에 젖어보는 것이 어떨까.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인터뷰 - 우리 신화학자 서대석 교수

제우스 앞에 기죽은 단군 할아버지

제자리 잃은 우리 신화에도 관심과 애정 필요



- 저서 • 한국신화의 연구
- 한국문학의 (1994, 공저)
- 구비문학 (1997)
- 한국의 신화 (1997)
- 한국의 무속 문화 (1998, 공저) 외 다수

그리스·로마신화를 필두로 한 '신화열풍'.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국신화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한국신화 학자 서대석(서울대 국문학)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우리 나라 신화가 다른 나라 신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 우리 나라 신화는 창세기 신화를 제외한 대부분이 무속신화로, 문헌보다 구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나라 신화는 문헌으로 전해지는 것이 많고 대부분 말 그대로 신의 이야기이다. 신이 주인공이고 인간은 조연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신화는 주인공인 인간이 신이 되는 이야기가 많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훈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 신화를 통해 그 나라 민족문화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

= 우선 단군 신화에서부터 그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사람이 되기 위해 속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을 살아야 한다는 환웅의 명령을 어긴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를 지킨 곰은 21일만에 여자가 된다. 여기서 곰이 근신한 21일은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급급을 달아놓고 21일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피했던 우리의 풍습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호남의 장자풀 무속신화에서 '사자밭'의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장자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며느리가 저승사자에게 후한 대접을 해 사자밭을 살려냈다는 신화로 이는 사람이 죽으면 작은 쟁반에 밥을 내어놓는 '사자밭'이라는 풍습의 기원이 됐다.

이 외에도 우리 신화에서 다양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 '신화열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리스·로마 신화만을 찾고 있는데 그 원인은.

= 그리스·로마 신화는 꺾고 다듬어져 문학작품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 거부감이 없고 등장하는 신들도 인간과 흡사해 대중들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로마 신화 열풍에 대해 한국신화학자로서 아쉬움을 느낀다. 신화는 그 나라 민족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우리 나라 신화를 비롯해 각 나라마다 수많은 신화가 있고 그만큼 다양한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조금만 눈을 돌려 그리스·로마 신화가 아닌 다른 나라의 신화를 살펴보면 그들 각각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 우리 나라 신화가 나아갈 비는.

= 최근 많은 자료의 정리로 우리 나라 신화가 학문적인 발달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 학문적으로만 연구될 뿐 대중적인 사랑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로마 신화는 그 내용이 흥미롭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문체나 시각적인 요소를 백분 이용해 대중적인 성공을 이뤄냈다. 우리 나라 신화 역시 이런 점을 받아들여 재미있는 문체와 함께 그 글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내용 속에서 우리 문화를 읽어낼 수 있도록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학계의 노력과 더불어 일반인들도 우리 신화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문화가 보인다

제우스와 박정희가 만났을 때

신이 된 남자 '박정희'

오랫동안 신들의 왕래가 뜸했던 제우스의 천궁에 영문도 모른채 초대된 수많은 올림푸스 신들. 잠시후 흐트러진 얼굴로 등장한 제우스가 신들에게 축배를 권한다.

제우스 : 과인의 초대에 응해준 올림푸스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오. 그대들을 잔치에 부른 이유는 우리에게 대한 관심이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까지 미처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라오. 일찍이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그들 인간을 좀더 인간답게 하기 위해 신화를 무기로 삼으려 하지 않았소?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 신화의 부활은 우리 문화를 그들에게 심어주며 인간답게 만드는 좋은 나침반이 될 것이오. 자, 모두 이를 축하합시다. 우리 신들이 세계 다른 신들의 자리를 모두 차지하길 바라며!

박정희 : 잠깐! 난 한국의 신 박정희라고 한다. 한국의 신으로서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요청할 것이 있다. 첫째, 나를 신화 속 신으로 편입시켜 줄 것. 둘째, 내게도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영역을 담당할 '자리'를 줄 것. 이 두가지다.

제우스 : 뭐라고? 감히 인간인 주제에 신의 잔치에 온 것도 무사하지 못할 일이지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 해? 네 놈이 벼락 맛을 보고 싶은 게로구나.

박정희 : 그렇다면 내가 당신들과 같은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

제우스 : 좋다. 그럼 내 질문에 답해 보아라. 첫째로, 우리 신들은 모두 탄생부터가 비범했다. 나의 아버지 크로노스는 태어난 자식을 죽 죽 잡아먹는 버릇이 있었는데 다행히 나는 어머니 레아의 도움으로 살아남았고 크로노스에게 토하는 약을 먹여 내 형제들까지 구했다. 하지만 너는 여느 인간들과 똑같이 태어나지 않았더냐?

박정희 : 그건 내가 모르는 소리다. 내 어머니 백남의는 뱃속에 있는 나를 죽이기 위해 조 선간장을 한 사발이나 마시

고, 섬돌에서 뛰어내리고, 장작더미에서 곤두박질치고, 일부러 디딜방아에 깔리기도 했다. 심지어 독약까지 마셨지만 나를 죽일 수는 없었다. 분명 인간이었다면 몇 번이고 죽고도 남았을 것이다.

“ 자기들의 혈세를 모아 내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을 보아라 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살아남아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

제우스 : 그래, 그건 그렇다고 치자.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네가 한국에서 신격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5·16 쿠데타를 일으켜 기존 체제를 뒤집어 정통성이 없는 군부 정권을 세운 까닭이 아니냐?

박정희 : 제우스! 너 역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앞서 세계를 지배하던 티탄 신들을 정복했다. 내가 이곳 왕이 된 것과 나는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이유로 나를 신이 아니라 단순히 '신격화된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제우스 : 뭐라고? 나는 천상을 지배하고 기상 현상을 맡아볼 뿐 아니라 인간 사회의 정치, 법률, 도덕 등 모든 생활을 지배한다. 어찌 그런 내게 함부로 말한단 말이나?

박정희 : 허허허... 그것 역시 나와 다르지 않구나. 70년대 내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 내 한마디면 전국이 벌벌 떨었다. 각종 검열은 물론 치마 길이, 머리 길이까지 내가 한국 국민들의 모든 생활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나는 사람들의 생각까지 단속했다. 내가 금지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조차 허용치 않았다. 이 정도면 제우스 너를 능가하고도 남는다.

제우스 : 뭐야? 내가 이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절대권력으로 건드린 요청들은 쉰 수도 없고, 태어난 아이들도 한통이 아니다. 내가 인간이었다면 절대 용납되지 못했을 것이다.

박정희 : 요청이라... 거 좋지. 요청을 내 집 드나들 듯 한게 내 취미 아니겠나. 그것도 모자라 청와대 안가에서 밤마다 '미녀 파티'를 열었다. 가게에 흔히 걸려있는 탈력 속 여자들이 모두 내 방을 거쳐갔을 정도니 내가 전혀 부럽지 않다.

제우스 : 난 가끔 지나가는 걸인으로 변신해서 인간세상으로 내려가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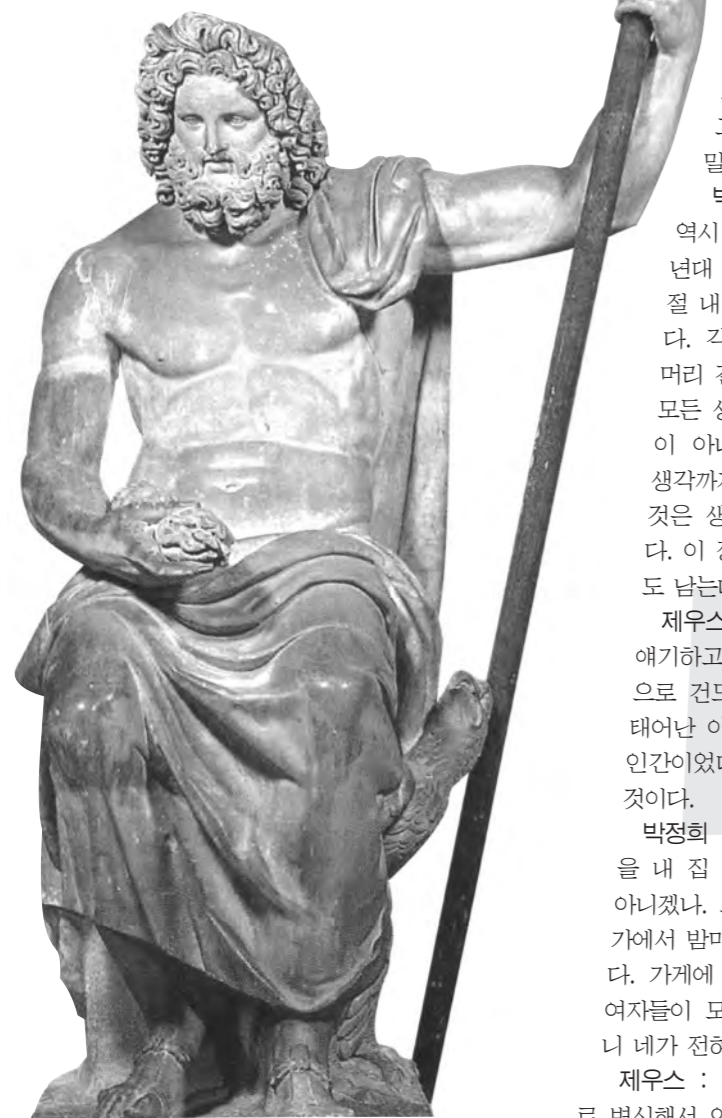
했다.

박정희 : 변신이라면 또 자신있다. 재벌기업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받은 검은 돈으로 부정부패를 했지만, 이 나라 눈먼 국민들은 서민들과 함께 막걸리를 들이키던 소박한 내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다. 간혹 신이라는 사실을 들켰던 너와 죽은 뒤에도 서민적인 모습만으로 남은 나, 둘 중 누가 더 변신의 귀재지?

제우스 : (얼굴이 빨개져) 우리 신들을 찬양하는 예술 작품은 수도 없이 많다. 우리에게서 영감을 받은 시인, 화가들은 너무 많아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화 속 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인간이기에 쉽게 잊혀질 것이다.

박정희 : 그 말을 들으니 내가 신이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 지는군. 혹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인간의 길'이라는 소설을 아는가. 그것은 나를 추앙하는 불후의 명작이라 할 수 있다. 서울 문래동에 있는 내 석상도 어쩌나 인정시하는지. 내 석상을 철거하려다 큰일날 뻔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그 사람들은 아직 나를 잊지 못한다. 다시 내가 부활하기를 바라지. 자기들의 혈세를 모아 내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을 보아라. 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살아남아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이라고도 내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손상민 기자
neo9292@dongguk.edu



말 말 말

신들을 보며 인간을 읽는다

▶ 제레니아 커틴(Jereniah Curtin, 1835-1906) 19세기 아일랜드 신화학자
신화가 거짓말로 인식되게 된 이유는 신화가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보편적인 원리를 특별한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정신분석의 창시자
세계에 대한 신화적 이해는 대부분 바깥 세계로 투사된 인간의 심리에 지나지 않는다.

▶ 아난다 쿠마라스와미(Ananda Coomaraswamy, 1877-1947) 20세기 인도 철학자
절대적 진리가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에 가장 가깝게 접근해 있는 것이 신화이다.

▶ 니콜라이 베르자예프(Nikolay Berdyaev, 1874-1948)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종교적 삶의 수수께끼나 인간적인 세속적

인 삶의 수수께끼나 각기 나름대로 복잡한 역사적 운명을 지니고 있었지만, 나는 그 수수께끼들이 구체적 신화를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 토마스 만(Thomas Mann, 1875-1955) 독일 소설가, 192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삶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신화라는 공식이 무의식을 통해 신화의 특성들을 재생해 낼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 공식 속으로 흘러들어 간다.

각 나라 신화를 찾아서

재미있는 이야기, 독특한 문화

한국



미륵, 새시대 꿈꾼 민중들의 희망

하늘과 땅이 생길 때 미륵님이 태어났다. 미륵님은 서로 붙어있던 하늘과 땅을 떼어내 다시 분리 않도록 네 귀퉁이에 구리 기둥을 세우고 각각 두 개씩 존재했던 해와 달도 하나씩만 남기고 별을 만들었다.

또한 미륵님은 금쟁반과 은쟁반을 양손에 들고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하늘에서 별레가 떨어졌는데 금쟁반에 떨어진 금별레는 남자로, 은쟁반에 떨어진 은별레는 여자로 변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평했던 미륵님의 세상에 석가님이 내려와 이를 빼앗으려 했다. 그래서 미륵님은 한방에 누워 먼저 모란꽃을 피워 무릎에 올라오게 하는 쪽이 세상을 가지자고 제안했다. 내기를 하던 중 석가님은 잠든 미륵님 무릎의 모란꽃을 꺾어다 자기 무릎에 꽂았다. 이에 화가 난 미륵님은 석가님을 꾸짖고 떠나버렸다.

이 신화의 '석가'와 '미륵'은 불교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석가는 현시대를 미륵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 결국 새시대를 열망하는 민중들의 소망이 투영됐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자연과 나는 하나인 것을

동양의 창세기 신화에서는 대체로 인간과 비슷한 신이 등장해 이들의 육신이 자연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 자연과 인간을 일치시키는 사상이 발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천지가 나누어지지 않은 혼돈 상태의 알 속에서 태어난 반고는 잠장 1만 8천년이 지난 후 잠에서 깨어나 날마다 키가 한 길씩 자라는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되었다. 반고는 하늘과 땅의 중간에서 양쪽을 떠받쳤고, 그래서 반고의 키가 한 길씩 자랄 때마다 하늘은 한 길씩

높아지고, 땅은 한 길씩 낮아졌다. 얼마 후 하늘과 땅은 더 이상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반고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 하지만 반고는 죽어서도 없어지지 않고 이 세상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로 변했다. 호흡은 바람과 구름으로, 목소리는 천둥과 번개로, 왼쪽 눈은 달, 오른쪽 눈은 해, 혈액은 하천, 근육은 지맥, 살은 논과 밭, 머리카락과 수염은 하늘의 별, 피부와 체모는 풀과 나무, 치아와 뼈는 금속과 암석, 골수는 주옥, 땀은 비가 되었다. 이리하여 천지가 완성된 것이다.

일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만물창조

태초에 온갖 요소들이 뒤섞인 혼돈의 바다를 내려다보던 세 신령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했다. 신령들은 우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를 만들고 여러 남신, 여신들을 만들어 냈다. 세상을 창조하라는 임무를 띠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혼돈의 바다속에 신령으로부터 받은 마법의 창을 넣고 휘휘 저었다. 다시 창을 꺼내자 창에는 바다물 몇 방울이 응결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도로 바다에 떨어져 섬을 이루었다. 신령이 이자나기에게 준 창은 만물을 창조하는데 쓰

인다. 이는 남신인 이자나기에 부여된 권력을 통해 가장장적 제도를 천부적인 것으로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후 이자나미는 자기의 다리 사이에 자리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고, 이자나기는 뛰어난 섬을 발견한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그 부위들을 합쳐보기로 했다. 그러자 이자나미가 섬들과 폭포, 산 등 아름다운 자연을 낳았다. 후에 이자나미는 불의 정령을 낳던 중 병에 걸려 그녀의 구토물은 광산의 근원이 되었고, 대변은 흙이, 소변은 만물의 정령이 되었다.

인도



카스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도의 푸루샤라는 신은 각각 천 개의 손과 눈,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대지 어느 곳이나 퍼져 있으면서도 열 손가락이 남을 정도로 몸집이 엄청나게 컸다.

그로부터 가장 원초적인 존재인 비라즈가 태어났고 비라즈로부터 인간의 형상을 한 푸루샤가 태어났다. 신들은 인간 푸루샤를 제물로 삼아 그의 몸에 신성한 풀로 기름을 바르고 희생제를 지냈다. 신이 제식을

올리자 푸루샤의 입은 바라문, 양팔은 크샤트리아, 넓적다리는 바이샤, 발은 수드라가 되었다. 또한 마음은 달, 눈은 태양, 귀는 하늘, 다리는 땅, 입은 인드라와 아그니, 숨결은 바람이 되었다고 한다.

이 푸루샤의 창조설은 푸루샤의 신체 상하에 따라 다른 종류의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 인도 특유의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의 기원이라는 설이 있다.

소나기

주5일 수업, 토요일은 자유(?)



△그라모! 토요일 자유지. △당근뽕!! △주4일 수업하여 자주학생 이룩하자. △교육은 100년지대계 이번 건 끝까지 갑시다. △초·중·고 등록금 줄여달라고 해라!!! △실질 임금 삭감 없는 주5일 노동으로 노동자의 자유를!! 보충학습·사교육 없는 주5일 수업으로 학생의 자유를!! △다시 과외열풍이... △이!! 나는 이미 주5일인데!! △전일제는 좋은데 주 5일은 심하다. △세상 좋아졌다. 나는 토요일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요즘 어떤 대학은 토요일도 수업한다던데... 이라다 초.중.고는 주5일 수업되고 대학은 주6일 수업되는 거 아니야? 나도 좋은 세상에 살고 싶다. △학생들만 편하겠네 △대학생하곤 상관없다 △자유???? △과의 신업 번창하겠다. △돈 많은 사람은 좋겠네, 여가 생활도 마음껏 즐기고. △금요일은 자유의 시작? △선진국 쫓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주 5일 수업이면 주 4일로 줄여!! △대학생은 이미 주 5일 수업 △애들 망치는 5일 수업 △또 미국 따라가기?? △그럼 토요일 아침에도 만화 영화 볼 수 있나?? △토요일에 공부 안하고도 대학 갈 수 있나보지.. △좀만 늦게 태어날걸.. △토요일에 있던 클럽 시간은 어디로 갈까?? △부모님의 5일 근무도 빨리 시행되길.. △현 시행대로네, 뭐 △그럼 일요일까지 이틀이나 놀아?? 학교 가고 싶은데.."

△달달이 월급자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구속. △진짜부터 이렇게 됐어야 하는건데.. △내가 중·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실사한다고!! 열받는다~ △학생들 토요일에도 공부하세요. 그래야 대학갑니다. △드디어 학생에게도 인간적인 생활이 보장되겠구나.

오늘의 열린글터

이종용 (사회복지석사학위 취득)

실명 달고 석사모 쓴 중년신사

“어려운 이들을 향한 마음의 눈을 뗐어요”

지난달 29일 경주캠 사회과학대학 학위수여식에서는 색다른 학위 수여자가 있었다. 사각모 차림의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신사가 흰 지팡이 케인을 사용하여 단상에 올랐다. '정신지체인 성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사회복지 석사 과정 학위 수여를 받은 그는 중도 실명자인 이종용 동문이다.

향으로 내려와 경주의 한 안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본교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는 지오 스님을 만났다고 한다.

“나 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돕고 싶었죠.” 그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사회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오 스님과 인연으로 이어져 그는 본교 사회과학대학원에 99년 3월 입학했다.

강의를 직접 녹음해서 공부한 그는 힘든 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공을 가족들과 여러 교수, 동기들의 덕으로 돌린다.

이종용 동문은 현재 경주 가정폭력 상담소, 남성의 전화, 한국노인의 전화 등에서 상담 일을 하



고 있다. 그는 사물을 볼 수 있는 두 눈은 잃었지만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

“어려운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진짜 용기이지”라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후학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후 노인 복지 무료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는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신체의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윤미 기자 copy@mail.dongguk.ac.kr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심도 깊은 논의 부족

지난 호 문화테마면 주강현씨의 글 아래 두 기사는 너무 편협하며 질이 낮은 느낌이 든다. 또한 위아래 두 기사는 글의 흐름이 무척 대조적이다.

먼저 주강현씨의 글은 강간역사에 빛대 우리문화의 폐해를 한탄하며 글을 열었지만 우리문화가 태동하고 있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밑의 두 기사를 보면 액면 그대로의 짧은 글은 공상들 밖에 그리지 못한 것 같다.

결론으로 드러나는 노랑머리, 패스트푸드 등 일차적인 문제점만 열거, 한탄하는 두 기사는 빗대보면 그저 한 노인이 허물 차며 뱉어 놓은 자조 섞인 푸념 정도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주강현씨의 우리문화 태동부분과 글을 같이한다면, 대학신문은 이런 문화 코드의 이면을 훑어 창조적인 코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특유의 특 쓰는 맛을 낼 수 있어야 할 터이다.

정인교 (상경대 국제통상3) 홍유현 (예술대 문철1)



(제1324호 9월 3일자)

동참의지 부여하는 기사되길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만큼 길게 끌어난 문제였기에 이번 동대신문에서 장애인들의 애환을 다룬 기사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일부만을 기사화한 것 같아 안타까웠다. 예를 들어 타국의 복지시설과 우리나라 복지시설을 비교형식으로 다루거나 장애인 성취사례를 예로 든다면, 우리나라의 부족한 여건에 대해 좀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노력하여 얻은 성과를 기사로 다뤘다면 독자에게 동참의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pc 통신 ID 하이텔 dgpress 니우누리 : 동대신문 천리안 : dgupress

경주캠 학생들이 총장님께 띄우는 편지

동국 발전의 열쇠 찾아주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서 느꼈던 안타까운 부분들에 대해 총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동국대학교가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원 구성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남부한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과로 배정된 실험 실습비의 액수와 그 쓰임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구성원간에 상호 신뢰와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총장님, 경주캠은 서울캠에 비해 상대적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서울캠과 경주캠의 외형적 차이만으로 학생들은 실망과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강의공간, 학생생활공간, 동아리, 학생회, 교수연구실 등 모든 공간에서 점점 학원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경주캠을 더 침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분이 하나를

모인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듭니다.

총장님, 한 대학교의 경영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해야 될 일과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경주캠 학생들 곁에서 자치만 소중한 동국 발전의 열쇠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동국대학교의 부흥에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교형 (경주캠 총학생회장)

동등한 '동국인' 되교과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주캠 학생들이 총장님께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도 동국대 학생으로서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받기 원합니다.

먼저 총장님께서도 경주캠을 서울캠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도 너무 많이 드러나는 서울캠과의 차이를 뭐라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같은 대학에 다니면서 같은 금액의 등

복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캠과 비교되는 이 모든 것들은 경주캠 학생들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총장님, 서울캠 학생수는 1만2천여 명이고, 경주캠 학생수는 9천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울캠의 건물은 26동, 경주캠은 12동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강의동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신실건물과 구건물 보수를 통하여 보다 쾌적해진 서울캠에 비하면 본교도 없는 경주캠은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또 학내 식당과 매점, 자판기의 질은 서울캠과 견주어 봤을 때 아주 형편없는 부분입니다. 총장님, 이것들만 보아도 왜 경주캠이 그토록 자치권을 바라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감히 지금 이 자리에서 총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도 서울캠과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장님, 올해가 가기 전에 총장님을 꼭 만나 뵙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 (경주캠 총학생회장)

한글대장정 완역에 부처

한글대장정 318권이 37년 만에 걸친 노력 끝에 완간 되었다. 한글대장정은 누구나 우리말로 된 대장정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자고 하는 서원에서 출발했고, 역경은 조계종의 3대 중점 사업의 하나이다.

한글대장정이 완역되었다고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한글대장정의 발간은 기초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건물의 기초공사가 끝난 것이다. 건물을 세우고 치장을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해야 할 부분이다.

향후 필요한 일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겠다.

첫째, 재 번역이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시대에 맞게 전산화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불경을 통한 불교 신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글대장정을 보관만 한다면 무의미하다. 이를 누구나 삶 속에서 묵상하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작업에서 재 번역과 전산화는 역경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며 마지막은 불교계의 모든 대중들이 함께 동참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제 밑은 수확되어 참고에 있다. 그

밑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는 전적으로 불교를 연구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몫이라 하겠다. 조환기 (인도철학과 강사·전자불전연구소 연구원)

동국인의 진정한 애교심

학교 내에서는 내가 동국인임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학교 밖에 나가면 새삼 동국인임을 깨닫는 적이 많다. 개강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명동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동국대를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큰 소리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한 동국인을 보았다.

그는 듣기 민망할 정도로 타학교 친구에게 본교에서 있었던 추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교수의 성추문사건과 수업이 엉망이라는 문제 등 나 역시 학교 생활을 하며 피부로 느끼고 동감하던 부분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인 동국을 욕하는 모습을 보니 그 학생의 입을 막고 싶었다.

어른들 말씀에 아는 사람이 더 한다고, 한국을 더 깎아내리는 것은 한국인이자 외국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대우를 결정하는 발언권을 가진 동국인이 동국대를 깎아내리는 것은 슬픈 일이다. 아무쪼록 진정한 애교심은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기반으로 한, 차분한 비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동약광장

목격길

축하합니다

△9월 9일 동국대 킥카운트 100일을 축하해주세요. △9월에는 우리의 친구이자 내 친구의 사랑인 SC가 휴가 나옵니다! 축하해주세요. △9월 9일에는 울 이쁜 친구가 남자친구와 100일이여. 참고로 저는 1년이 되는 날이구요. △9월 14일 행정 98 이쁜 손해원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지연이가 △9월 8일은 '산하지기'의 공연입니다. 모두모두 축하, 격려해주세요 산하 만세이~ △DUBS 43기 첫방송 모두 추가한다. 열심히 하고 계속 수고해 ^^ -41기 재워니 △'96 박준석 형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 형은 정·연의 대쌍이랍니다. △총철군과 미지양의 100일(9월 14일)을 축하합니다. -선학전공 학생 일동 △'98 현주언니 축하하드려요, 올해는 꼭 열심히 다니세요. -현주를 사랑하는 모임 △북한학과 00학번 박영주! 전공결정 축하해. 반가워~ 잘해보자. -98은영언니 △윤화언니, 졸업 축하해~ ~ 이제 임용에 집중해서 포육 붙어!! -***'98맹강공주

△아리랑 거리공연 열심히 준비하고 무사히 마친 거 축하드려요. 앞으로 더 멋진 아리랑의 모습을 기대할게. 중앙노래패 학과 5층 아리랑 파티팅! -이리랑을 사랑하는 이가 △북한학과 98학번 이석우 복학 진차 축하해! 반가워~ 학번장도 잘해야해. -은영 △성미야, 방학동안 치약 팔러 다니느라 고생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 추가추가! △늦게나마 현수의 입대를 축하해. -호랭이 △승서, 2번째 축하한다. -사회학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하지기 선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7기 후배들이 △축생축사진전 연승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폐지들! 설문조사 하느라 수고했다. 세상이 원래 쉬운 게 아니야 ^^ -psik20 △동기들이 수고했어! 이제 우리 여덟 번만 하면 돼. 얼른 끝내고 인도가자 -울! △설문조사 도와준 우리 식구들 수고! △진아형! 먼 타지에서 고생이 많으시구요, 기사 쓰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ppuzic

열심히하십시오

△지현, 현주, 정미 내년에 섬 꼭 잘봐~ △종덕야! 공부 열심히해! -종덕이의 영원한 팬

△산악부 1학년들이, 2학기때는 더 열심히 생활하자! -sy △준오야!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 △생자대 집행부들, 사을 능률 준비 잘 해봐요!! -33대 생자장 △마지기 후배들. 10주년 창립제 준비 열심히해라. -마지기 8기 선배가 △뒤늦지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아 너러 파티팅~! -용매장 △사회학과 학우들, 열심히 투쟁합시다 -사회학도

그리고...

△건축사자연연구회 무궁한 발전이 있길. -미스코트 홍보부장 △문무대의 뜨거운 여름을 너희들과 함께. △강경주 교수님 빨리 나오세요!! 통일은 꼭 우리가 이뤄 낼게요! 통일은 우리의 몫! △역교과 개뽀바라기 2학기도 힘차고 맛있게 삼시다. -권 △예정야 학교로 돌아와라. -열 △국어 국문학부 미너 삼총사 육연, 지혜, 태경. 날이 갈수록 너무 예뻐지는 거 아냐 -기관요원 울 △우리 얘기들 영화 같이 봐서 즐거워. △중대부고 출신들~우리 동문화 안해여? -윤경 △동현야,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다. 2006년에 보자.

은방길

축하합니다

△중어중문 박진영 1종보통 운전면허증 딴 것을 축하합니다. -친구 주씨 △보경이&성진이 100일 축하한다~ -성·재호 △국관 3학년 지으니 생일도 추카 -소돌 △9월5일 송수이 탄신일!!! 대방 축하한테이~ ~ -Dolphin 짱 △축복의 날 9월 14일! 화선이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친구가 △9월 14일 사회복지학과 번지여의 생일입니다. -친구일동(영선, 문련, 경아, 혜진) △영복선배 사이관여 축하!! △문경 머리 기른거 축하해. △경영학과 00학번 '김동민'이 9월1일에 드려 일병을 달았습디다!! 동미니를 알고 있는 사람덜 마니 추가해주세염~ -mini가 △유준오빠~ 경주온거 생일 축하!! △수희야!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 계속 행복하고... 사랑해. △은혜야, 똑립(?)한 거 축하해. △재환이형~ 내년이면 고평들이 볼 수 있는거죠? 축하드려요. △친구야, 보구싶구나. 이빠진거 축하해. △내친구들 애인생긴거 축하해~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대 1학년 과대님들이! 개강파티때 수거했져~~~♥ △현정야~ 닭갈비 뷔느라 고생이 많다. 수고해. △지나 1주간 너무 수고했다. 비록 크게 웃을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잘 해내라. △MY선배, 힘내세요. 수고^^ △정환언니~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기도 제대로 못 나누고, 밥 한끼도 못했네요. 사랑해요.

열심히하십시오

△국문과 4학년 학우님들, 마지막 학기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열심히 달립니다! -4학년 이쁜이 재철 △고교 정은야 열심히 해라. -쟁! △동국대학교 미식축구부 white elephant 추계대학 선수권 대회에서 피 땀흘려 좋은 성적 냈시다. -57번 양군 △Skinbelle, rainbow 우리 열심히 함 해보자! ㅋㅋㅋ 성건동 엽기 4인방 fighting! △근혜야,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해라. 어려워 버도 참고, 넌 해낼꺼야!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하자. 넌 분명 기쁜 날을 맞이할꺼니깐... △뽀뽀고 수고했다. 앞으로는 우리 이리저 말기다~

그리고...

△대 바라밀 9월26일 공연 마니 보러와영 △2001년 2학기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2001년을 맞이했던 첫 마음을 되새기며... 예쁜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동국배드민턴 △수진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지윤 △명이야 사랑해. 내 마음을 받아줘~♥ -C.SK △4학년 2학기 20학점을 위하여~ ~ 졸업합시다!! -정바 △소나비 2학기 때도 번창하길 빌어요. 영화제두 성공적이길~ △건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오빠, 동생 파티팅~ △적극함을 달랠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일단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 nyna@yahoo.com △성건동 술집에서 한번 모이자. 꿀꿀한 이 기분 훌훌 털어 버리게... -대신유니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걸치장이 아닌 친구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다. △그래도 우리는 한 식구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합시다

경주캠 도서관 출입기 설치

중·고등학생과 장상인의 출입을 막고,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다.

찬성

반대

그리 오래 대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불편은 자리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다.

도서관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서울캠퍼스는 물론 외국어대, 연세대, 경북대, 건국대, 단국대 등도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강 후 가장 큰 변화는 도서관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였다. 도서관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중 하나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도서관 개방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졸업생들의 도서관 출입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물론 지역주민과 졸업생들에게 특별 출입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캠 TEL 02)2260-3491~2 경주캠 TEL 054)770-2057~8 FAX 02)2279-1270 FAX 054)770-2057

있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동국의 발전이 동국인에게 달려 있다는 경각심과 그에 대한 노력을 잊지 않는 진정한 동국인이 되길 기대해 본다.

특별기고 - 강정구 교수 구속사건에 대하여 "모난 돌이 정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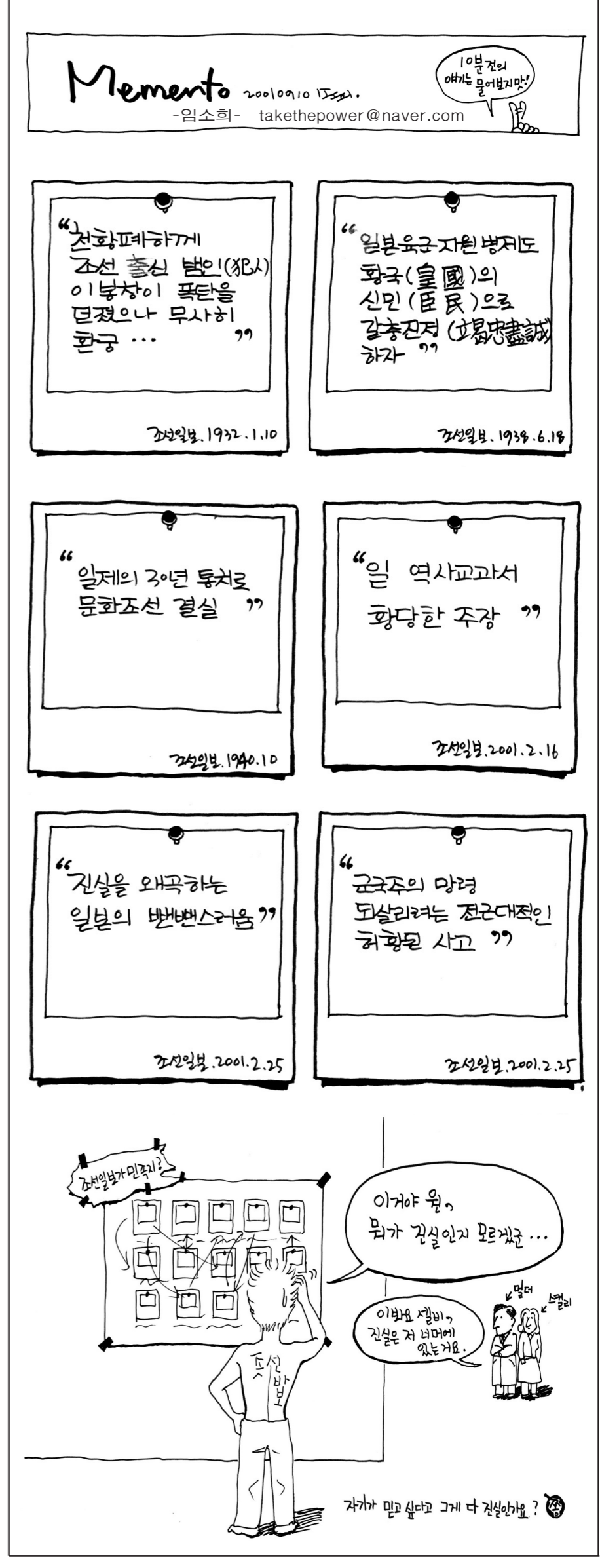
존경과 그리움의 대상 ... 하루 빨리 강단으로 돌아오시길

기속사 급식제도 개선요망 개강과 함께 나의 두 번째 기속사 생활이 시작되었다. 막상 기속사에 들어오면 걱정되는 것이 급식에 대한 문제다.

특정 지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한다. 지난날 20일 강정구 선생님이 김포공항에서 연행된 지도 벌써 보름이 넘었다.

에 계속 데리고 있다가는 그 원성(怨聲)에 잠이라도 제대로 자겠는가. 주위 몇몇 분들이 선생님 구속을 '모난 돌이 정 맞았다'는 말에 비유하고 있다.

의 선봉에 선 이들이 아닌가. 서울구치소에서 이 광경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 심정이 어땠으셨을까.



2002학년도 해외 자매대학 교환유학생 선발. 파견기간: 2002. 3. ~ 2003. 2. (1년). 1. 파견기간: 2002. 3. ~ 2003. 2. (1년) 2. 해당대학별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2001 출판부 신간안내 Tel) 2260-3483~4 Fax) 2268-7851 TruEnglish 패턴 TOEIC! TOEIC 수준이 470점에서 725점 사이 인 학생들을 위한 ...

2002학년도 해외 자매대학 독일어연수 시행 1. 연수대학: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 (University of Regensburg) 2. 연수기간: 2002. 9. 2(월) ~ 10. 11(금) (6주)

달하나 천강에

동학 주변 만들기



최인숙
문과대
철학과 교수

내가 우리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동대 주변환경도 들어간다. 대학 주변환경이 점점 상업주의를 지향하는 쪽으로 변해간다고 많은 이들이 비판의 소리를 내곤 하는데, 우리 학교 주변은 달한 편이다. 아니, 우리 학교 주위에는 특별히 과소비를 부추길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학교 주위에는 딱히 대학문화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대중음식점, 빵집, 아이스크림집, 꽃집, 병원 등은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지, 특별히 대학문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물론, 오늘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다른 분야와 특별히 구별되는 존재는 아니다. 그러나 다른 부문들에 비해 특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주도해 가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날의 대학은 여

전히 '특별한' 존재이다. 우리 사회가 구석 구석에 이르기까지 시장제일주의, 소비지상주의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대학은 중심을 다시 세워, 새로운 문화 정립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우리 학교 후문에서 충무로 쪽으로 나가는 길 옆에 서점 하나가 있다. 이곳이 예전에는 학생들이 책을 사기도 하고, 서서 책을 읽기도 하고, 서로 만나는 약속 장소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곳도 점점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이 책을 잘 사지도 않지만, 사더라도 대형서점에 가서 사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 저렴하게 사려고 하며, 또 이곳을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문 현상이 되었다고 한다.

학교 주위에 단 하나 있는 서점(인문사회 분야서점)마저 문을 닫게 된다면, 우리 동대 인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이공분야, 예술분야 서점들도 새로이 생겨나고 그 외의 다른 문화시설들도 들어서서, 우리 학교 주변 문화를 '만들어내', 사람들이 이곳을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러하지 못할 처지라면 현재 있는 서점 하나라도 우리들이 자주 이용해서 우리 문화를 가꿔야 할 것이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속하는 곳을 스스로 가꾸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걷고 싶은 권리 찾기

안전과 편의 생각한 사람의 거리이자 도심 속 문화 쉼터로

영화 '로마의 휴일'은 스페인광장의 계단을 배경으로, 짧은 머리를 찢았으며 아이스크림을 먹는 앤의 모습을 천진난만하게 그리고 있다. 하지만 자유를 만끽하는 앤 공주의 뒷 배경으로 깨끗하게 정돈된 스페인계단 대신, 자동차와 건물이 뺨뺨하게 들어선 광화문 도로가 펼쳐진다면 어떨까. 그때도 앤이 그토록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을까.

노점상이 즐비하고, 도시의 색깔이라고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자동차의 신속한 통행을 명목으로 하나 둘 없어지기 시작한 횡단보도 역시 우리의 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님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제 거리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다. 문화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는 '거리-건축-사람'이라는 주제로 거리답사를 다니면서 실태조사에 나섰고,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걷고 싶은 거리, 문화거리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물리적 구성과 사람의 동선과 흐름, 시각 환경의 질적수준 유지, 거리축제의 활성화 등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문화문길, 인사동 거리, 강남구 로데오 거리, 강남역 카페골목 등 서울시내 20곳을 '걷고 싶은 거리'로 시범조성하고 있다. 그 예로 창덕궁 돈화문에서 종로3가에 이르는 돈화문길은 차도를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닥은 점토블록으로 대체하고, 나무그늘에 의자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돈화문길은 한복집과 국악기 상점이 밀집해 있어 '국악의 거리'로 특성화시킬 예정이다.

한편, 경주 역시 문화유적을 감상하며 걸닐 수 있는 거리 조성이 한창이다. 경주시는 '철성대'에서 김알지가 태어난 '계림 숲'까지의 길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선정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신라국악예술단의 공연과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

더 나은 거리를 위하여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운동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서울시가 선정한 거리들이 대부분 특정구역에 한정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따로 떨어진' 거리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게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람을 생각하기 보다 도시의 미관에만 중점을 둔 '거리를 위한 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걷고 싶은 거리'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이다. 을지로의 명보극장 앞 도로의 X자형 횡단보도와 같이 합리적이며 사람을 생각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김태현 간사는 "걷고 싶은 거리는 조성보다 관리와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걷고 싶은 거리'는 분명 짙빛 일색이던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감성을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앤 공주처럼 여유롭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기에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운동이 이벤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되길 기대한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문화거리, 세계 VS 한국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독일 베를린의 운터 덴 린 거리, 노르웨이의 칼 요한 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거리의 대표 사례이다. 먼저 뉴욕의 브로드웨이는 무려 400여개에 달하는 극장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베를린 운터 덴 린 거리 중세 건축양식을 보존하면서도 현대미를 엿볼 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 또한 양이었던 칼 요한 14세의 이름에서 딴 노르웨이의 칼 요한 거리는 노천카페와 거리 예술가, 행상인들이 조화를 이루어 색다른 도시 풍경을 연출한다.

이들 문화거리는 '거리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정신을 밑바탕에 깔고, 각 도시의 특성에 따라 도시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리는 어떠한가. 사람이 지나는 길보다 차도가 넓고, 그것마저도 옥외간판이나 노점상으로 빼앗긴 실정이다. 도로 양편에는 가로수 대신

인터뷰 - 도시연대 김은희 씨를 만나

'통과'에서 '머무름'으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희 씨를 만나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게 된 동기라면.

= 언제부턴가 '방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 맺고, 교류하는 '머무름'의 공간인 거리를 단순한 '통과'의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차들은 걷는 공간을 침해하며 대부분의 거리를 자동차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사람 중심이 되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다.

- 운동의 진행과정은 어떠한가.
= 예전에는 도시연대가 직접 나서 '부평문화의 거리', '인사동길', '걷고 싶은 종로' 등의 운동을 진행

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을 평가하며 그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선정한 걷고 싶은 거리는 대부분 공원, 산책로의 형태이고 그 방법도 보도확대, 벤치 설치 등 단순한 방식만 취해 아쉬움이 남는다. 공간, 환경의 차이만 있을 뿐 그 거리만의 특색을 만들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 아주 미약하다고 본다.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거리조성 과정에서도 주민 혹은 주변상인들의 반발이 간혹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는 결코 '행정'만의 운동이 아니다.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이용할 수 있는 거리만들기가 되어야 한다.

- 앞으로의 바람직한 운동 전개방향에 대해.

짜인소식

미술학부 개강전



서울캠 미술학부가 '개강맞이 전시회'를 갖는다. 방학동안 정성스레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서양화부터 한국화, 조소작품, 불교미술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 미술인들의 탐과 노력의 결실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10일)부터 14일까지, 90주년 기념 학술문화관 지하 1층 갤러리 동국에서. 문의 2260-3670

국악과 타악 발표회

경주캠 국악과가 '풍음'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타악 발표회를 연다. 이번 자리는 사물의 가락 위에 축원과 고사덕담의 내용을 담은 '고사굿'을 소개하고, 여러 북을 통해 자연의 소리를 이끌어 내는 '모

듬북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북과 징, 장고, 풍과리의 절묘한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는 13일 오후 7시, 서리별 문화회관에서. 문의 (054)772-2578

만정제 흥보가 완창발표회



경주캠 국악과 김선영(관소리전공4)양이 주운속 선생에게 사사받은 '만정제 흥보가 완창발표회'를 가진다. 이 무대에서는 이현정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흥부가 놀부에게 쫓겨나는 대목부터 제비가 흥부에게 박세를 물어다 주는 노정기, 가난타령, 제비를 후리는 부분까지 열창할 예정이다. 오는 12일 오후 5시(30분. 원호관 소강당II)에서. 문의 (054)770-2509



= 우선 운동의 시작과 통기가 있어 출발은 좋았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주차문제, 노점상 등 근본과제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거리지체만 변화를 주려 했기 때문이다. 또한 걷고 싶은 거리를 인위적으로 선정, 거리의 연결성을 끊어놓았다든 지적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동차문제 등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거리가 지닌 나름의 '향기'를 살려 자연스러운 거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걷고 싶은 거리자체가 '고립된 섬'이 되지 않도록 접근로도 신경 써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방안 마련이다. '진정 걷고 싶어지는 거리'를 위해서는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리>

hviolet@dongguk.edu

문화기획



영화, 이제 맛있게 보세요!

지난 8월 30일, 표현의 자유 권리를 찾기 위한 길고 길었던 힘겨운 싸움이 막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보류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등급위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영화의 상영등급 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현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 제도에 해당한다"

창작자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관객에게는 볼 권리를 되찾아 줄 등급분류 위헌 판정. 이제 우리는 가위질 되지 않은 생생한 영화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체비평

영화편

무사

“무사, 공주를 구하고 스크린 퀴터제를 사수하라”



극사실주의적 화면과 장엄한 스케일로 한국영화의 새 지평을 연 영화 '무사'.

뜨거운 태양, 끝없는 사막.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며 태양에 지치고 모래 바람에 쓰러진다. 그러나 어디를 둘러봐도 시원한 나무그늘이나 오아시스는 눈에 띄지 않는다. 김성수 감독의 새영화 '무사'는 600년 전 중국대륙에 사신으로 갔다가 사라진 고려무사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원(元), 명(明) 교체기의 혼란한 중국 대륙에서 원의 첩자로 몰려 귀양을 가던 고려인들이 사막 한 가운데에서 원군과 명군의 전투를 접하는 내용으로 2시간 40여분의 첫 고리를 풀어내는 '무사'.

내내 전쟁과 전투 장면이 많음은 전면에 부각시켰던 만큼 카메라는 피가 튀고, 칼에 베이고, 창에 찔리는 영상을 끊임없이 잡아낸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이 잔인하다고 느껴지기에 앞서 화려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피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말이 달릴 때 튀는 흙알갱이 하나 하나가 생동감 보이도록 잡아낸 극사실적 영상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1년 넘게 중국대륙에서 한·중의 스태프들이 땀을 흘리며 만들어낸 영상들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개봉전부터 화제작이 되어 있었고 지난 금요일 전국 180여개 상영관에서 관객 맞이에 돌입했다.

국 영화는 상영관을 잡기도 힘들었거니와 막상 극장에 걸렸다 하더라도 윌리우드 블록버스터가 들어오면 너무도 쉽게 간판을 내려야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는 여느 해와 달랐다. 한국영화들의 잇단 대박행진과 수입 폭증에 이어지는 흥행성적. 게다가 문화의 종다양성을 주장하며 한국 영화를 지켜온 스크린쿼터 상영일수 역시 상반기에만 평균 0.5일을 초과하는 성적을 거뒀다. '친구'로 시작된 대박행진은 '신라의 달밤'과 '엽기적인 그녀'를 거치며 상반기 우리 영화시장을 기쁘게 일궈냈다.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적인 여배우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의 장쯔이까지 영화에 함께하고 있으니 '무사'는 장쯔이를 사랑하는 대륙의 팬들까지 안암리에 관적으로 접착어 놓은 것이다. 영화 '무사'의 무사들은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싸우고 전쟁을 치루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나 이 전투는 맛보기일 뿐이다. 영화 속 무사가 아닌 영화 '무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무사'는 우리 영화시장에서 뿐 아니라,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싸워야 하며, 한국영화의 위상과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무사'의 건투를 빈다.

표영연 문화부장 pisk20@dongguk.edu

일본문화가 몰려온다

한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갈수록 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 나라의 특색있고 개성적인 문화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외국 문화에 길들여져 우리 것보다 외국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더욱 세련된 것인양 쳐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은 가운데 무차별적으로 수용한 외국문화는 우리 문화를 퇴색시키고 황폐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옛날 아시아의 작은 반도에는 상투틀고 멩기매고 한복을 입은 민족이 있었다. 이들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는 나라 안에서 오손도손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이 작은 반도에 침을 흘리는 무리가 나타난다. 이들은 무역개방을 앞세워 배를 몰고와 반도의 문을 두드리지만 당시 이 작은 나라의 왕권을 좌지우지하던 흥선 대원군이라는 사람은 결코 이들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지만 개방에 앞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문화수용에 대한 우리의 자세다.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함양함에 있어 비판이나 자각없이 무조건 흡수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놀이문화인 가라오케와 DDR이 우리나라에서는 노래방이나 펌프(PUMP)로 대체되어 함유되고, 일본의 유명 가요는 종종 '포컬'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우리 가수들의 입을 통해 불려지며, 한국의 TV오락 프로그램 시장은 일본 방송의 복사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

또 가정이나 식당에서 음식과 반찬을 소량씩 담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지하철에서 옆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게 신문물을 작게 접어 보는 것 등 우리가 배워야 할 일본의 생활문화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때문에 일본문화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는 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다른 나라 문화를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의 문화 말살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어를 지켜내고, 우리 문화를 보존해온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문화, 주체적인 문화를 꽃피워 나갈 때이다. 바로 문화 수용의 취사선택이 그 열쇠라는 것을 잊지 말자.

- 1. '문화식민지'로 전락하다
2. 일본 문화가 몰려온다
3. 우리 문화는 있다

지금 우리는?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과 관련해 일본문화 전면개방을 골자로 하는 '일본문화 4차 개방'안이 무기한 중단됐다. 18세 미만 관람불가 영화에서부터 일본의 쇼, 드라마 등 TV오락프로그램이 전면적으로 개방될 예정이었던 이번 개방계획은 사실상 우리나라 전역을 일본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없었다.

물론 일본에도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여야 할 좋은 문화 현상과 운동이 많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도시육상 녹화사업을 추진, 삭막한 도시 속에서 조금이라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정제없는 곳으로 넓게 쓰는 것들이다.

때문에 일본문화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는 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다른 나라 문화를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일본문화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는 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다른 나라 문화를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표영연 기자 pisk20@dongguk.edu

먼 나라 이웃 나라

정부가 지난 7월, 일본 외교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일본문화 추가개방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문화 전면개방을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로 보고, 보다 올바른 방향의 문화교류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문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과연 한국에서 느끼는 일본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에 본지에서 사회학을 공부중인 재일교포 3세, 신촌에 위치한 일본카페 '가케하시' 운영자,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의 일본인 보좌관을 만나 이야기해 보았다.



박홍실(25) 본교 교환학생

"고등학교 때 평양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일본과 북한 그리고 한국의 사회를 비교 연구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됐다. 그 중에서도 문화는 특히 중요하다. 일본문화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국문화이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은 오랜 시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봄 아저씨 게임'이 한국에서 크게 유행하고, 일본에서는 '닭갈비'가 인기메뉴로 등장하는 등 한일문화의 역류현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것은 두 문화가 긴 세월동안 닮은꼴을 유지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결코 정부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꼭 국적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이제 문화교류가 정책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가 인기메뉴로 등장하는 등 한일문화의 역류현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것은 두 문화가 긴 세월동안 닮은꼴을 유지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결코 정부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꼭 국적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이제 문화교류가 정책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용준(30) 일본카페 운영자

"98년 국내 처음으로 일본카페를 개업할 당시, '왜 하필 일본이냐'는 비난의 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가케하시'란 카페이름은 '우정을 맺는 다리'를 뜻하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 젊은이들이 허물없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또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일본인 유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는 일본어 수업이나 매도관을 통한 팬클럽구 찾기 등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작은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두고 우열을 따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자신의 문화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개방은 조금 시간을 두고 살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순히 일본문화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우리문화가 얼마나 주체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활용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두고 우열을 따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자신의 문화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개방은 조금 시간을 두고 살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순히 일본문화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우리문화가 얼마나 주체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가치카와(34) 일본문화원 보좌관

"한국문화라고 하면 '경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으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전주 비빔밥도 내가 좋아하는 한국문화 중 하나이다. 이렇듯 문화교류는 어려운 것이 아니며, 정치적인 힘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한국음식을 좋아하듯 일본의 다도도 좋아하는 한국인도 있을 것이

다. 한일관계가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임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일본문화개방을 중단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한일관계를 논할 때 서로의 감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기에 양국의 문화교류는, 청소년들이 홈스테이를 통해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일본문화개방 진행상황

Table with 4 columns: 1차개방(98.10.20), 2차개방(99.9.10), 3차개방(2000.6.27), 4차개방(2001.7월 중단). Rows include categories like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 and specific items like '세계 4대 영화제', '한일공동제작영화', '애니메이션',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

메아리

엽기적인 그들

▲그녀는 하이힐을 신어 발이 아프다는 이유로 건우의 운동화를 빌려 신는다. 그녀의 하이힐을 신고 뒤통거리며 걷는 건우에게 그녀가 소리친다. "나 잡아봐라"기가 차드는 건우의 표정에 다시 그녀가 소리친다. "너, 나 안 잡으면 죽어"▲한나라당이 평양 대축전 파문의 책임을 물어 임동원 통일부 장관 탄핵안을 제

출하고 지난 3일 국회에서 임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자민련이 동조함에 따라 시작부터 말이 많았던 DJP공조가 무너지고 국정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주축이 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YES 때보다 북한에 대한 지원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피겨스케이팅'이라고 시비를 걸고 햇볕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햇볕정책은 총체적 실패라고 두말을 한다.

한나라당 132명 의원들과 이들을 부채질한 이회창의 일관성 없고 책임없는 즉흥적 대응으로 남북화해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니 이 정도면 실소라도 할러야 할까. ▲물론 통일부 장관에게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8·15축전에 남북 사람을 북에 보내고 이들이 돌출행동을 해서 국가보안법을 위

반했으니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여야를 떠나서 남북한의 평화증진에 도움이 되는 문제인가. 그보다 지속적인 교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의 남북문제이다. 하지만 DJP공조 파기로 보수여당의 설움을 겪을 현정부의 처지가 절망적일 뿐이다. ▲깊이를 알고 싶어서 호수에 그를 밀어 넣는 그녀의 엽기 행동보다 더 엽기적

인 그들, 영화 속 그녀는 온갖 돌출행동까지도 사랑스럽지만 '노랑문'을 방불케하는 고정정치인들의 '엽기행각'은 눈뜨고 봐주기가 어려운 따름이다. 엽기가 유행이 되는 다양성의 시대지만 21세기의 과제인 민족문제와 통일문제 앞에 엽기적인 그들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윤미 사회부장 kiza41@dongguk.edu

새소식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본교 윤리문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가 1995년에 출간한 '에코필로소피(소피)'에 이은 두 번째 생태철학서, 철학 뿐 아니라 학문 전반에 걸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주제인 생태·환경 문제에 관해 논하고 있다. 기존 환경윤리학 서적이 가지던 '계몽적' 성격을 탈피해 환경윤리의 논쟁점을 소개하고 논증한다는 점에서 '철학적' 성격의 순수 학술서라 할 만하다.

구승희 지음 / 동국대학교 출판부 / 정가 1만4천원

그대 스스로 변화를 시작하라

본교 연구교수로 재직중인 이거룡 교수가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로 알려진 달라이 라마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8편의 시'라는 강연 내용을 번역한 것. 평화와 비폭력 정신으로 알려진 달라이 라마의 명성답게 그가 인류에 보내는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가 책 속 가득 담겨있다.

달라이 라마 / 이거룡 역 / 이테네 / 정가 8천원

청산에 나빌레라

극단 연우무대가 서울시무대공연지원작으로 선정된 극 '청산에 나빌레라'를 무대에 올린다. 기생신분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가인이며 시인이었던 황진이의 삶을 그리는 이번 연극은 황진이를 자유로운 예술혼을 지닌 진보적 여성으로 새롭게 조명한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하고 우리 교유의 정서를 세계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만큼 독창적인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7시 30분(월~금) / 3시·6시(토·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문의 762-0810

청혼

코메디의 원류를 찾아 새로운 실험정신으로 뚝친 프로젝트 그룹 '아토피'가 체류의 '청혼'을 가지고 관객을 찾아가는다. '청혼'은 각자의 필요에 의해 결혼을 하고자 하는 노총각, 노처녀가 각자의 이기심과 가문의 자존심이라는 청혼과는 무관한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간신히 결혼에 골인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연극은 등장인물의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을 통해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한다.

오는 13일(금), 8시/14일(토), 4시·7시.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문의 2635-3580

해외 대학가는 지금 - 영국의 대학 입시제도

두단계 과정, 진학·취직 진로 결정에 도움

시험 주관식 출제 ... 희망전공분야 기초 심도있게 준비할 수 있어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는 영국은 지난 8월 말 치러진 두 가지 대입시험(GCSE, A-level)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영국 학생들은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에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시험을 본다. 합격자의 성적에 따라 학교에 남아 2년 동안 대입 시험인 Advanced level 준비를 할 것인지, 직업교육 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GCSE 점수는 대입 뿐만 아니라 거의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학생들과 부모 심지어 학교 교사들도 좋은 성적을 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현실이다.

영국 언론들은 이번 시험 결과가 GCSE 합격자 수가 최근 몇해 동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상위 등급(A-C) 합격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중점 보도하고 있다. 또한 GESC 상위점수 합격자의 수가 늘어난 것을 두고 학생의 '질'을 문제 삼기도 했고, 대입을 희망하는 학생수가 늘어나자 제도 수정을 요청하는 사립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다루기도 했다.

"GCSE시험을 일년 앞당겨 후 A-level을 2년이상 공부하는 것이 나올 것 같다. A-level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데 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The times 9월1일지-

대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GCSE시험 후에 2년 동안 A-level을 준비한다. 이때 자신의 희망 전공 과목을 포함한 관련 3-4과목을 주관식으로 치른다. 따라서 학생들은 희망 전공분야의 기초를 대입전에 깊이있게 공부하게 된다. 즉, GCSE가 변별력이 떨어지고, 대학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대입 시험인 A-level을 보다 심도있게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GCSE를 일년 앞당겨 치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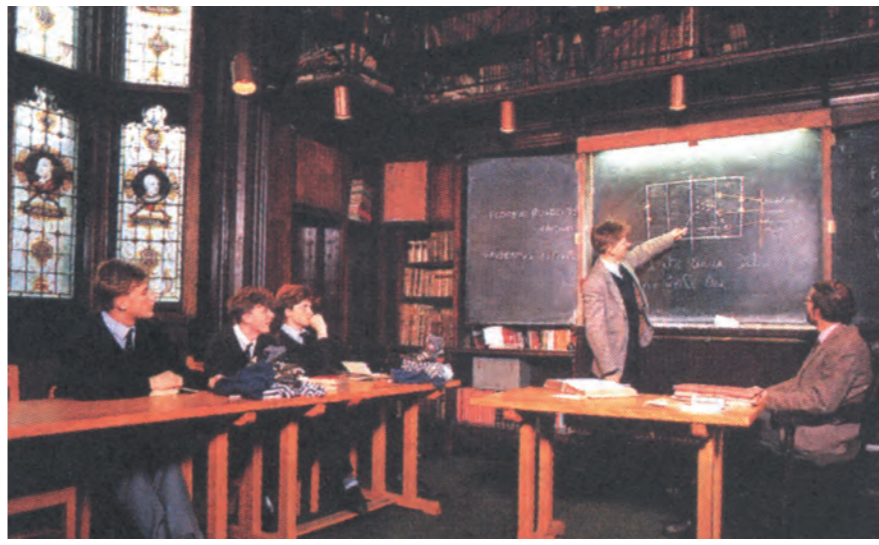
얼마전 교육부가 2005학년도부터 수능 시험이 이원화 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수능1은 자격고시로 전환하고, 수능2는 전공능력 측정시험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이 기본능력을 측정하는 후 전공분야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은 영국에서 GCSE 시험 후에 A-level 시험을 치르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과연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담보 될 수 있을까? 또한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이 서열화 되어있는 현실에서 원서 접수가 코 앞에 다가오면 각종 눈치 작전이 성행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도록 교육 전 영역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 한들 그 취지가 올바르게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 할 것 같다. 선진 제도의 부분 부분 만을 모방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행태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우리 교육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한국의 모습과 더 나은 교육의 '질'을 염려하고 있는 영국의 모습이 참으로 대조적이다.

대입이 한 장 이뤄지고 있는 지금 영국은 너무나 조용하다.

김진아 (사회4·영국유학중)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담보 될 수 있을까? 또한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이 서열화 되어있는 현실에서 원서 접수가 코 앞에 다가오면 각종 눈치 작전이 성행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도록 교육 전 영역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 한들 그 취지가 올바르게

이제는 익숙하고 다발지역으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의 네가지나 되는 전설 중에서 특히 「신라시대 귀족의 딸인 예기가 결혼을 앞두고 금장대에서 그녀를 뺨쳐 죽인 후에는 이곳에서 죽는 사람이 많다」라는 글귀가 눈길을 끄는 것은 어쩌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지 모를 예기 처녀의 한 때만일런지도 모른다.

바람이 많은 날이면 바위절벽 주위로 몰려드는 소용돌이가 비바람 보기에 간담을 서늘하게 적신다는 이곳, 강동리의 무너져서 모화가 죽음을 맞이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 이곳에 그대도 정이 가는 것은 맑은날이면 잔잔한 물결과 천연덕스러운 아름다움으로 변하지 않는 위로를 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팬스레 허전한 기분이 드는 때는 짧은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일상속의 비 일상 금장대로 말이다.

(향)
lilith@mail.dongguk.ac.kr

손짓으로 나누는 사랑 VI

“가을이 되니 외로움을 느낀다”

가을이
양손을 펴 가슴앞에서 바람이 불듯 화살표 방향으로 돌린다.

되니
오른손을 세운후 화살표 방향으로 살짝 돌린다.

외로움을
왼손바닥에 검지와 중지만 펴 오른손을 세워 동시에 화살표 방향으로 돌린다.

느낀다
오른손검지를 아래로 향하게 펴 머리옆에서 화살표방향으로 내린다.

(제공: 손짓사랑회)

동아리 탐방 - 정통 힙합 동아리 'AJAX'

힙합을 통해 '나'를 표현한다.

올 여름 정식 동아리 인정 ... 동방없어 연습장 찾아 헤메기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나가면 AJAX 인지 한 눈에 알겠다고."

비트를 타는 듯한 몸짓과 말투, 바지 한 쪽을 걸어올리고 수건을 두른 그들의 보면 누구든지 단번에 AJAX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마련이다. 동아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들을 알아보지만 정작 AJAX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채 3년이 되지 않는다.

힙합에 관심있던 몇몇 이과대 학생들의 소모임으로 출발한 AJAX는 재작년 준동아리로 영역을 넓히고 이제 활동인원 3,40명을 아우르며 학기말마다 정기공연을 갖는 여전한 정식 동아리가 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수용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신입생들이 몰려 '잘나가는' 동아리임을 새삼 실감하기도 했다.

이러한 AJAX의 급성장에는 운동권 문화로 알려져던 대학내 동아리 문화에 대해 N세대들이 갖고 있던 '자유'의 욕구도 적지 않게 반영되어 있다. '내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힙합이 좋다'는 한 부원의 말처럼 거침없이 자기를 발산하고 즐기는 AJAX의 분위기는 학생들을 끌어당



힙합페스티벌 준비를 위해 춤 동작을 연습하는 'AJAX' 회원들

기기에 충분한 매력에 있어 보인다. 그러나 걸로 드러난 이러한 매력에 AJAX의 전부를 이해한다면 큰 오해다. '힙합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그들의 말만큼이나 힙합을 대하는 자세는 즐거움 이상으로 진지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랩, 춤, 알앤비 등의 특화된 소모임을 동아리 내에서 운영하는 한편 1년에 한 번씩 힙합 페스티벌을 직접 주최하는 등 깊이와 다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여름 정식 동아리로서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AJAX. 요즘은 오는 10월에 주최할 힙합페스티벌 준비가 한창이다.

정식동아리가 된 이후에도 동아리방이 없어 강의실을 점전하고 있지만 힘들어도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해내며 희열을 느끼는 그들의 모습에서 N세대 청년의 열정을 본다.

(송)
itsJ@dongguk.edu

일상속의 비밀상을 찾아서

금장대·암각화·예기청소 ... 전설의 현장을 마주하다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한뼘쯤 여행이란 단어를 떠올린다. 물론 일상을 벗어나 기관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하지만 손에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라면 어떨까?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 되어버린 이곳 금장대에서 일상속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자.

경주쪽 후문 쪽에 위치하고 있는 금장대 앞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입담 속에 전설처럼 전해지는 명소가 있다. 금장대안이라!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기러기도 갈 길을 멈추고 내려와 앉는다는 3기 8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곳.

학교를 벗어나 '동대육교'의 끝자락에 뻗어있는 오솔길을 걸어 들어가다 보면 10여분 안에 금장대안이라는 전설의 현장에 닿을 수 있다. 그 옛날 임금님이 서울(지금의 경주)의 경치를 즐기던 금장대가 있었다는 이곳에는 이제 이름 모를 누군가의 발본과 그 옛적 누대의 주춧돌만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형상과 줄기는 아름답게 구비되고 여기 저기서 솟아오르는 새 때들이 추억을 말하고 있다.

이 금장대안에서 수풀을 헤치며 아래로 내려가면 골짜기 보이는 것이 지난 94년 본교 고고미술 사학과가 발견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암각화이다.

여기저기 바위틈새처럼 이리저리 표면을 가만히 훑어 나가다보면 방패문, 인면 등의 문양을 발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청동기 시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라는 말이 있지만 암각화의 모습이 신기할 뿐인 보통 사람들에게겐 상상하기 힘들만큼 오랜 세월의 파편이 그저 대견하게 느껴질 따름이다.

그 암각화에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암벽의 아래로 펼쳐진 깊고 푸른 물줄기가 있다. 바로 혈산강줄기, 더 자세히 말하면 예기청소란 이름을 가진 사연 많은 곳이다.

이제는 역사사과 다발지역으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의 네가지나 되는 전설 중에서 특히 「신라시대 귀족의 딸인 예기가 결혼을 앞두고 금장대에서 그녀를 뺨쳐 죽인 후에는 이곳에서 죽는 사람이 많다」라는 글귀가 눈길을 끄는 것은 어쩌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지 모를 예기 처녀의 한 때만일런지도 모른다.

바람이 많은 날이면 바위절벽 주위로 몰려드는 소용돌이가 비바람 보기에 간담을 서늘하게 적신다는 이곳, 강동리의 무너져서 모화가 죽음을 맞이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 이곳에 그대도 정이 가는 것은 맑은날이면 잔잔한 물결과 천연덕스러운 아름다움으로 변하지 않는 위로를 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팬스레 허전한 기분이 드는 때는 짧은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일상속의 비 일상 금장대로 말이다.

(향)
lilith@mail.dongguk.ac.kr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햄숙어찌개(1500) 참치김치덮밥(1500) 순살돈까스(1500)
화	만두육개장(1500) 양송이볶음밥(1300) 해물덮밥(1500)
수	닭갈비백반(1500) 미트볼덮밥(1500) 생야채비빔밥(1300)
목	사골곰탕(1500) 쇠고기볶음밥(1500) 떡갈콩기(1300)
금	돈사태찜백반(1500) 잡채밥(1500) 하이라이스(1300)

(단위: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정미국밥(1500) 해물된장떡볶이(3000) 참치회덮밥(1500) 제육참쌀우이(3200)
화	양지탕(1500) 만두전골(3000) 오징어볶음백반(1500) 골뱅이소면무침(3000)
수	순두부찌개(1300) 우거지갈비탕(3500) 제육덮밥(1500) 오징어무찌개(3000)
목	떡볶고기백반(1500) 콩나물술밥(3000) 치킨까스(1500) 계장백반(3500)
금	너비아니구이백반(1500) 비빔밥(3000) 돈갈비(1500) 닭갈비백반(3200)

(단위:원)

독자광고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순수한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습기자모집

누구를 이학번을 원시정수는 9월 14일(금) 오후 6시까지 어디서: 학생회관 지하 영자신문사에서 어떻게: 면접과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원고료 및 활동비등 지원이 병행됩니다... AA
질문이 있다면 주저 말고 2260-3493으로 call...

고전음악감상실 방송요원 모집

▶ 방송시간 : Pm 12:00~17:00(월~금)
▶ 방송요원 모집
일 시 : 9월 3일~9월 13일까지
자격요건 :
자신만의 색깔있는 음악 방송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
면 점 : 9월 13일(목) pm 6시
문 의 : 054)770-2779

사회학과는 강정구 선생님 구속에 항의하여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강정구 선생님이 원래 알고 있던 수업들 중 몇 개를 골라 대안수업으로 만들어 학생들 스스로 꾸려가려고 합니다. 대체수업은 누구나 들어와서 토론할 수 있고, 천막도 언제나 열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대가 선생님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후원계좌 : 조흥은행
371-0442936 김두연(인권위원회)

우리들의 열린공간

『우리들의 열린공간-2001년 가을호』의 지면을 빌어,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도 시상품권을 나누어드립니다.

● 내 용 : 나의 고민, 나의 상담자,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등
● 배 부 : 각 건물 신문배부대, 학생상담실 앞 소시지 배부할
● 미 감 및 점 수 : 2001년 10월 12일(금)까지 / 학생상담실
● 추첨자 발표 : 2001년 10월 19일(금)까지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김치두부국(1300) 오징어숙회비빔밥(1600) 닭갈비볶음밥(1700) 햄박스테(1800)
화	오징어무찌개(1300) 돈까스(1500) 짜장덮밥(1700) 불나물덮밥(2000)
수	짬뽕밥(1900) 김치볶음밥(1600) 불고기덮밥(1700) 아채견경비빔밥(1300)
목	아육국(1300) 케레볶음밥(1600) 치킨까스(1800) 집밥(2000)
금	햄숙어찌개(1300) 오징어제육덮밥(1700) 쇠고기볶음밥(1700) 잡채밥(1800)

(단위:원)

경주캠 원호관 교직원 식당 차림표

월	복어갈비국·아육전골(2500) 쇠고기덮밥(3500)
화	아육국·버섯돌깨탕(2500) 돈까스(3000)
수	아차오들전골·생선숙깃탕(2500) 삼계탕(4000)
목	너리리버섯된장국·쇠고기무국(2500) 김밥+칼국수(2500)
금	무부리새우국·콩나물지짐이(2500) 비빔밥(2500)

(단위:원)